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 아버지, 고난 없는 축복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위하여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2월 6일 (토) 제 157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예수 따르는 경건생활로!

2016 사순절 2월10일-3월27일, 철저한 경건훈련위한 교회절기로 삼아야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절기 중의 하나가 부활절인데, 많은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을 기념해 '사순절' 기간을 지키게 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사순절이 미신적인 의미로 변질돼 시행되고, 금식과 고행 등을 통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므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전히 폐지했지만(칼빈의 기독교 강요 4장 19-29), 오늘날까지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중요한 기간으로 지키고 있다.

사순절(The Lent)은 이름 그대로 '40일 간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여 40일간 육식을 먹지 않고 참회하는 기간이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 2월 10일(재의 수요일)부터 3월 27일(예수 부활 대축일)까지이고 첫 날이 수요일인데 이 날은 재를 뿌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쁘하다고 해서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간을 겸손하게 보내기 위해 빵이나 기름은 물론 과일도 먹지 않았다. 특히 고난주간에는 모든 성도가 금식에 동참했고 성금요일에는 교회에 모여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 사순절은 경건과 참회 그리고, 절제의 시기다. 이 기간에는 그러므로 평소엔 즐기던 일을 삼가고, 그 횡수를 줄여야 한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가족, 교회와 민족, 나아가 인류의 죄악을 참회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평소 즐기던 것들을 삼가고 평소 즐기던 음식도 삼가며 화려한 옷이나, 치장하는 일은 삼간다. 사순절은 경건, 절제, 금욕의 기간이라는 점을 유념하며 지내는 것이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과거 사순절이 무엇인지,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옳은지 몰랐던 이들은 이제 사순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이 기간에는 더욱 절제와 금욕에 힘써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올해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 새삼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며 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가 주는 엄청난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IS



를 비롯한 이슬람극단주의자들과 테러 전쟁, 사우디와 이란간의 갈등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등 중동 사태는 흥미를 거둬주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선거에서 뚜렷한 후보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나마 두각을 보이는 후보들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정세가 극히 불투명하고 정치불안, 경제위기, 도덕적 타락, 급속한 가정 붕괴 등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제물들이 너무나 많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모든 크리스천이 개인과 사회, 국가의 힘찬 부활을 위한 회개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크리스천들이 회개 및 경건운동을

펼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순절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에 회개와 경건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 진정한 변혁이 이뤄질 때, 기쁜 충만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자녀들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가르치고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소비를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의미를 되새길 때 사순절은 자녀들을 위한 귀한 영적 훈련기간이 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강경보수 총아와 아웃사이더의 반란!”

미 언론, 아이오와 코커스 일제히 보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1일 치러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크루즈 후보는 28%의 득표율로 도널드 트럼프를 4%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23%의 득표율로 트럼프에 불과 1%포인트 뒤진 3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트럼프 돌풍'이 한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예측마저 제기될 정도로, 경선 첫 번째 격전지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부터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셈이다. 민주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도 초박빙으로, 한마디로 중앙정치무대 경력이 거의 없는 '백발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함께 동물을 이루어 '힐러리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두 번째로 벌어지는 뉴햄프셔 경선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민주당, 공화 진영에서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승리는 양당의 고유 성향인 진보와 보수를 실제적으로 대표하는 후보들이 선정한 결과, 승리를 차지했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미 언론은 테드 크루즈와 버니 샌더스 양 후보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 4%P 앞서 “트럼프 돌풍” 멈추게 해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힐러리 대세론” 잠재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아이오와 첫 코커스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28%). 대선 레이스의 첫 관문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누른 것이다. 선거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승리를 점쳐왔다. 막말과 기행에도 트럼프 돌풍을 일으키며 여론조사에서 앞서 달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크루즈 의원은 탄탄한 조직력과 저인망식 선거 유세를 통해 표심을 얻는데 성공하며 트럼프 돌풍을 넘어선 것.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하면서 여세를 몰아 나머지 지역에서도 상승흐름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의 득표율은 24%에 그쳤다. 3위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에게마저 바짝 쫓기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9일 열리는 뉴햄프셔 예비선거 결과까지 지켜봐야 유력한 승자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루즈 후보는 공화당 내부에서 서도 티 파티 등의 극우파를 대



변하는 정치인이며, 존 매케인의 독불장군식(maverick) 보수주의나 조지 부시 가문의 전통적인 텍사스 보수주의와도 또 다른, 반 이민/친기독교/반낙태/친방위자 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결론과 가족에 관한 보수주의적 성향도 강해서, 동성결혼이 2015년에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 받았을 때를 미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24시간(The Darkest 24 hours in US History)이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그는 소장과 보수주의자이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신 있는 특성을 보여주듯이, 대권 도전 선언도 공화당 민주당을 통틀어 처음으로 했다. 그리고 미국 최대 기독교 계열 학교인 버지니아 주 리버티대에서 연설하면서 첫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의 표심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한백 선교사 5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특별기고 김기원 목사 13면
인터뷰 남가주 순회공연 갖는 '노아' 16면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3rd Missional Church Seminar
2016.3.14(월) - 16(수)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

한국일 교수
신교학
장문희 신학대학교
논문: 선교적 교회론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들
역서: 선교학 사전(공역)
저서: 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들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NCKPC/PCUSA 총회장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저서: 사회선교는 이렇게 리더십은 이렇게

신광섭 교수
선교적교회
Intercultural Studies
Visiting Professor of Missional Church Education,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노승환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박태은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지역사회 선교사역
선교위원장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영상(Practicum) 노숙자 숙박 사역(CARITAS/Homeless Shelter), 노숙자 급식 사역(Monroe Park/Soup Kitchen), 빈민촌 주택보수(Project: Homes/Renew Crew), 산골빈민촌사역(Appalachian Service Project), 지역사회축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Korean Food Festival)
숙박 Four Point Sheraton Hotel 등록비 \$100 (교재 및 숙식), 선교사 (등록비면제)
등록 주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DSMC) 주관 주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PCUSA)
협력 센트럴 신학대학원 (CBTS/D.Min Program) 후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읍선: 워싱턴 세이비어 교회 탐방 및 관광 (수요일 오후)

주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DSMC) |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 560-7500/7509 | WWW.LJKC.ORG



시론

사슴나무골에서(26):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한 참된 위로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새해가 시작된 후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 수훈 중 특히 팔복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음 속 깊이 울림을 갖고 다가왔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항상 슬픔 속에서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전쟁과 폭력 등의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통해 하는 모습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애통해 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위로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베풀어야 할 위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또한 제자들을 통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임 속에는 신뢰와 훈련이라는 고상한 목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양들이 항상 배부르고, 편하고, 무탈하고, 안온할 수만은 없음을 아시는 주님은 목자로 섬겨야 할 종들에게 애통해하는 양들을 위해 그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말씀과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애통해하는 자들을 향해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훈계와 설교로 마치 야단을 치기도 하고, 선부른 충고와 조언으로 상처만 더 깊게 만드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아마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늘 설교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살다보니, 단 30분정도도 남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위로를 할 목적으로 심방을 할 때도 피 상담자의 모든 문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 해결해주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런 증상을 “Pastoral Fixing Syndrome”(PFS, 목회적 해결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그 애통해하고 있는 마음의 웅덩이에서 스스로 그 모든 슬픔을 직시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목회자나 상담자의 역할은 그 아픔과 외로운 애통함의 구렁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려가 그 옆에 앉아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애통함의 시간은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시간입니다. 고인에 대한 추억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감사와 용기를 발견합니다. 아쉬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단려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적인 고통과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그 슬픔을 수긍하며 들어준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여정에서 편안한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때까지, 몸소 애통해하고, 애통한 마음을 말하고, 위로 받을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자 역시 애통해하는 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보면, 함께 슬픔을 공유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후, 슬픔에 젖어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몸소 눈물을 흘리신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되어있음을 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모두 쓰임받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dspark@gmail.com

팔레스타인 내부갈등, 이-팔 폭력사태 주 원인!

뉴스위크, “이스라엘보다 더 무서운 적군은 내부갈등” 보도

최근의 이-팔 폭력사태가 제3차 인티파다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의 내부 갈등이 더 큰 문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의 칼란디아 팔레스타인 난민촌. 이곳의 주민회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나 이스라엘군과의 충돌로 사망한 청년 9명을 애도하는 추모관으로 탈바꿈했다. 최근 어느 날 오후 회관 중앙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남자들이 앉아 블랙커피를 마시며, 다가올 한 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희망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다. “정치적 해결책이 없는 한 폭력사태가 계속되면서 격화할 것”이라고 현지 주민위원회의 자말 라피 회장이 말했다.

최근의 폭력 사태는 지난해 가을 이-팔 종교분쟁의 핵심지인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유대인에게는 ‘성전산(Temple Mount)’, 무슬림에게는 ‘고귀한 성지(Noble Sanctuary)’로 불리는 곳이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인의 공격(칼로 찌르거나 자동차로 들이받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으로 이스라엘인 24명이 사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스라엘 군인이나 무장 민간인에게 살해당한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144명이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그중 92명이 이스라엘인을 공격한 가해자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특별 보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간의 폭력 사태를 촉발시키는 원인들을 조사하면서, 바로 팔레스타인 내부 갈등이 양측 간에 전면전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주 원인이라고 밝힌다(MAHMOUD ABBAS'S STRUGGLE TO PREVENT A THIRD INTIFADA).

그러나 라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가 전면적인 인티파다(intifada,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불만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우선 최근의 폭력 사태는 주로 ‘단독범(lone wolf)’의 공격이었다. 제2차 인티파다 당시 보편적이었던 자살폭탄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다. 2000년 9월 시작돼 2005년 2월까지 이어진 이 봉기에서 이스라엘인 1000여 명과 팔레스타인인 5000여 명이 사망했다.

요르단 강 서안의 팔레스타인인은 최근의 폭력사태에 공감하지만 직접 참여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2



합리적인 압바스 수반 정책은 PLO 호전파와 갈등 야기 제2차 인티파다로 분쟁해결 안돼 전면전 없을 것 예측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에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인 대다수가 압바스 수반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듯 보인다. 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소(PCPSR)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67%가 (같은 사용한) 최근의 공격을 지지했다. 또 응답자 중 66%는 이번 폭력 사태가 ‘무장 인티파다’로 발전할 경우 팔레스타인의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다. 갈수록 깊어지는 압바스 수반과 팔레스타인 국민 간의 갈등을 말해주는 조사 결과다.

칼란디아 난민촌의 주민은 이번 폭력사태에서 목숨을 잃은 가족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나세르 아부 구웨일레의 아들 위삼은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자동차 공격을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 아부 구웨일레는 의례적인 애도의 말을 거부하고 고통스런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의 순교를 축하해 주세요.”

압바스 수반은 이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세하데 같은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인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 보안군을 배치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25일 PA 보안군은 서안지구 라말라 시 근처 베이트 엘 정착촌의 이스라엘군 진지로 향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를 저지했다. 압바스 수반의 경호대원들이 시위대를 가로막았다. 시위대 중 일부는 앞선 이스라엘군과의 충돌에서 부상을 입었다. 시위에 참여했던 칼라데 자와레에 따르면 PA 사복 경찰들이 경찰봉으로 시위대원들을 때렸다.

자와레는 시위대가 다시 행동에 나설 거라고 말했다. 좌파 성향의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한 파벌)을 지지하는 운동가이자 건설업자인 자와레는 압바스 수반을 ‘인티파다의 적’으로 묘사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의 또 다른 파벌에 소속된 운동가 수백 명이 베이트 엘 정착촌을 향해 행진하던 중 PA 보안군의 저지를 받았다. 이 운동가들은 압바스 수반의 파타 운동(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팔레스타인인의 시위에 대한 압바

스 수반의 개입이 계속될 경우 그의 지지도 하락이 한층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44%였던 지지도가 12월엔 38%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PCPSR의 조사에서 팔레스타인인 3분의 2가 압바스 수반의 사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예수 따르는 경건생활로!

(1면에서 계속)
한편 '2016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실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사순절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매년 사순절을 앞두고 전 세계의 축제로 열리는 카니발(Carnival)은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한 축제 기간이다.

카니발은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지내느라 고기도 못 먹고 흥겹게 놀지도 못하니 그전에 실컷 먹고 즐기자는 데서 시작됐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을 감사하여 벌이는 축제가 '사육제(謝肉祭)'라고 번역을 하고 원래 의미도 '육식이여 안녕(farewell to meat)'이다.

지금도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카니발 기간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파티와 각종 행사 등이 벌어진다.

사실 카니발을 사순절과 따로 생각해 축제라는 의미로만 본다면,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탈출

하여 누구나 함께 즐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행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카니발의 시작은 사순절을 더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로 시작이 됐다는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원래 카니발에서 입고 쓰는 현

란한 의상이나 가면들도 사람의 가장 나쁜 7가지 죄악(교만, 시기,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정욕)을 상징해 우리 마음속에는 반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점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 단순히 특별 새벽기도회나 금식이나 육신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족하는 또 다른 우리만의 카니발이 아니라, 겉세마네 동안에서 피땀 흘리며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과 영혼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한다!

(편집부)

는 도구가 됐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카니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생아가 생길만큼 타락한 축제가 됐을 정도로, 카니발이야말로 사람의 악하고 연약한 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패와 타락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점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 단순히 특별 새벽기도회나 금식이나 육신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족하는 또 다른 우리만의 카니발이 아니라, 겉세마네 동안에서 피땀 흘리며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과 영혼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한다!

(편집부)

소망 칼럼

믿는 자에게 임하는 넘치는 은혜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인간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이래로 죄의 속박 아래서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에 놀러 멸절당하지 않고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주셨기 때문이다. 즉 성별된 제사장을 통해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던 구약시대의 제의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혜로써 제정해 주신 속죄의 규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주셨으니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음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속죄하게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자는 이렇듯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증거했다(히4:14-16).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가 지금까지 살며 아직까지 멸절되지 않고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변하여 새사람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된다.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하루는 꿈에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그곳에 놓여 있는 빈 보좌가 있기에 이는 누가 앉을 자리라고 물었더니 성 프란체스코의 자리라고 하였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는 슬그머니 질투가 났다. 꿈을 깬 후 스승인 프란체스코에게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라고 대답했다. 제자는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라고 항의하니 성 프란체스코는 웃으며 말하기를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라고 하였다. 이걸 보면 성 프란체스코는 참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말 한 마디에 신앙과 겸손이 넘쳐났던 것이다.

태양은 지금도 선이나 악이나 모두에게 비추고 있다. 구름에 가리워도 구름 위에는 여전히 햇빛이 비치고 있으며 우리가 그늘진 집안으로 들어와도 그 햇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만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고 말씀하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엡1:7)라고 하였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었음을 믿기만 하면 죄악과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양드려야 한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2:8-9)고 하였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쳐 받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로 더욱 믿음이 자라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세상 유혹과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newhopebr@hotmail.com

“강경보수 총아와 아웃사이드의 반란!”

(1면에서 계속)
크루즈 의원은 1970년 캐나다 앨버타 주 켈거리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모친은 미국인이고 쿠바 태생인 부친은 1957년 미국으로 건너왔으나 2005년까지 미국 시민권을 갖지 못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크루즈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2012년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이듬해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완제혁안(오바마케어)을 지지하고자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까지 초래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보수 진영에서는 기린아로 급부상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도 “2017년 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모든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는 물론 이민개혁 등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정치 어젠다 뿐 아니라 이란 핵협상,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 외교 부문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밝혀왔다.

선명한 보수 색채에 힘입어 2014년 9월 보수 유권자 모임인 ‘벨류즈 보더 서밋’ 연차총회의 대권 후보 비공식 예비투표에서 25%의 지지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통령 후보자격’ 논란이 있고, 공화당 온건 중도 세력을 대변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격차가 불과 4% 안팎이기에, 뉴햄프셔 경선에서 비로소 뚜렷한 윤곽, 즉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우세한 고지를 누가 먼저 선점할지가 모두가 기대하는 관심사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금융개혁, 무상 등록금, 빈부격차 해소 같은 급진 정책을 내세운 ‘아웃사이드’에게 정치 명문가의 ‘여왕’이 망신을 당했다.

한마디로, ‘대세론’을 앞세웠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후보 비공식 예비투표에서 25%의 추락이 가파르다. 철옹성 같던 당내 입지까지 흔들릴 정도로, 아

이오아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에게 동틀을 이겼기 때문이다.

‘전국구’라기엔 약해 보이는 샌더스의 인기 상승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나 CNN 등은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민심과 눈을 맞추는 정치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인에게 다소 생경한 ‘사회주의

대형 금융기관 해체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 의료보험 확립, 자유무역 반대 같은 그의 정책은 다소 과격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인들 불만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도 상승을 견인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같은 아웃사이드로 고속 질주를 하는 공화당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프가 ‘이민 반대’외에는 공허한 ‘탈’로만 개인적 매력에 편승해 인기를 끄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샌더스의 질주가 실제 표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바로 당내 지지 기반이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샌더스 지지층이 주로 ‘백인 좌파’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내 다수인 비 백인과 이민자, 여성을 얼마나 자기편으로 삼느냐가 관건이다.

We are seeking a full time youth pastor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s seeking a full time pastor for growing Youth and English ministry with passion for preaching and worship leadership, teaching, and helping our members grow in their faith.

Qualifications:

- 1. Master of Divinity degree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2. Ordination (Not Required but Preferred)
- 3. Experience in EM
- 4. Passion for Christ
- 5. Bilingual in English and Korean (Not Required but Preferred)

Requirements:

- 1. Resume
- 2. Personal testimony and Philosophy of ministry
- 3. One sermon file

Position description:

Full-time position(Salary \$36,000-\$42,000/yr, plus health insurance)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Email: ocpc91@gmail.com

Contact: (360)456-1636 or, (360)789-8731



EM 풀타임 청소년 사역자

WA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 장로교회에서 EM 풀타임 청소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사역 & 사례]

- 풀타임 (\$36,000-\$42,000/년, 의료보험)
- 주사역: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EM 청소년담당 사역

[자격]

-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교 졸업하신 분(본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 영어 사용에 불편이 없는 분(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사용 가능한 분)
- 영혼을 사랑하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한 분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간증문과 목회 철학 및 비전
- 최근 영어 설교 한편

[제출할 곳/문의]

Email: ocpc91@gmail.com (서류접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TEL. (360)456-1636 or, (360)789-8731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얻기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엄청난

노력과 도전을 통해야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고산을 등정하는 산악인들의 경험담을 들노라면 외경심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였고, 그 외에 여러 고산들의 정상에 두 발

로 정확하게 디딘 사람들입니다. 말이 그렇듯 그런 고봉에 서기까지는 눈물겨운 투쟁과 목숨을 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를 일궈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태리 쪽에서 올라가는 알프스 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3500미터까지 올라간 후에 300여 미터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계단은 거의 60도 이상의 경사로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다가 어지러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이 보면 너무나 하찮은 높이인데, 그 높이도 오르지 못하는데 8000미터 이상을 올라가야 하는 산악인들에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까 여겨집니다. 해발 8000미터에서는 한발 자국을 내딛고 몇 분 동안 가쁜 숨을 내쉬 후 한발자국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것처럼 치열하게 자신과 싸워 일궈낸 승리가 정복이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복이란 단어는 누가 보아도 경외감을 지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모든 분야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 없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관습에 젖어 사는 인생이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믿음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열한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개 비처럼 막막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귀한 믿음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고로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내일을 다 한 다음에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골2:21). 이 시대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년 이상을 집사 직분을 받아 헌신하던 분이 교회 출석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길로 빠지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아니면 이제껏 가져왔는데 진짜처럼 각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나는 어릴 때 아는 형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갔다가 예기치 않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상을 즐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하거나 교회를 결코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후에도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올곧게 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보면 온갖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관계의 악화도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고 말입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에서 올곧게 믿음을 지키는 일처럼 복된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딤후3:8)라는 두려운 선언을 듣지 않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경성하여야 할 시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한화영 목사
(남가주웨로십교회 원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중간 결산을 하지 말자”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망했다. 실패했다라는 결산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스스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패하거나 병들었을 때 사주팔자 운명을 탓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중간 결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너무도 쉽게 결판을 내려서 중간 결산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심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쉽사리 중간 결산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②양심의 가책과 자살하기로 중간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

①이스라엘 민족의 중간결산과

②모세의 부르짖음과 하나님 지시에 순종한 결과 그 때 하나님의 지시가 오기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당치도 않는 말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이 어떤 자인지를 내가 직접 시험해 보아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때부터 음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 연속적인 환난을 당했습니다. (재산갈탈, 10남매의 죽음, 악장이 생김) 친구들은 음을 찾아와 너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 그 죄를 자복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도망쳐

습니다. 음은 부자로서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 앞에서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는 음이라든가 그에게 주신 축복을 모두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이 어떤 자인지를 내가 직접 시험해 보아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때부터 음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 연속적인 환난을 당했습니다. (재산갈탈, 10남매의 죽음, 악장이 생김) 친구들은 음을 찾아와 너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 그 죄를 자복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도망쳐

원망하지 않았습니. 절망에 빠져 중간결산을 하지 않았습니. ③그는 오히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준비해두신 멋진 축복의 아침이 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음은 고난 건너편에 있는 축복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부인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 오직 주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소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지이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찬송 455장 4절).

중간 결산을 하지 말자

(출 14:10-14)

1. 가룟 유다는 중간 결산했다

마태복음 27:5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말했습니다. ①예수님의 사랑 받던 제자가 배신한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 받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 불만을 품고 예수와 반대되는 사람들과 합작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온 30에 팔아넘기는 망령된 일을 저질렀습

30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물러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때 그는 중간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할 놈이다. 망령된 일을 저질렀으니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중간결산을 해서 끝장내면 안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 모세는 홍해에서 중간결산 없었다

30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물러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때 그는 중간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할 놈이다. 망령된 일을 저질렀으니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중간결산을 해서 끝장내면 안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경우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던 중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무장한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어떻게 달아날 도리도 없이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중간결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망하게 되었으니 다시 되돌아갈 길 밖에 없다고 하며 잘못된 중간 결산을 할 때, 모세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없이 닦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 결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고 기적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음은 환난 중에도 중간 결산 없었다

욥기 1:21에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음은 건널 수 없는 환난을 받았

버렸습니다. ②그는 잘못된 중간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 음은 악장이 오른 몸뚱아리를 기왓장으로 긁어 피투성이가 된 채로 홀로 남았지만 아무것도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l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어디에서 누가 무엇이 억울하다며 울부짖는 소리인지 아는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라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 소리다.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은 그토록 서럽게 울부짖는가? 이는 오직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심령들이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음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참으로 처연한 참상(慘狀)을 하늘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다.

세계 인구는 이미 73억을 넘어섰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73억 중에 공산권 17억, 이슬람권 17억, 힌두교권 13억, 기타 3억을 합한 50억 이상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네들의 구원자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듣지 못하니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니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3, 14).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아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도 채 10위안(1800원 정도)도 되지 않을 풍성귀 한 울음을 길바닥에 퍼붓고 오가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할머니, 뜰겨나간 소쿠리에 흠이 덕지덕지 묻은 고무마 몇 개를 담은 채 찌그러진 저울을 무릎 사이에 끼고 바짝 쪼그려 앉은 할아버지, 스무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젊은 아낙네가 서너 살은 된척한 커다란 아이를 업은 채 피라미 서너 마리를 쥔 줄을 슬픈 눈으로 흔들고 있는 그 앞을 사람들은 시선도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어느 사이 나는 나의 한심함도 잊어버리고 가난함을 서글퍼 하는 슬픈 구경꾼이 되어있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저 모습이 나는 아니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억울했다. 한없이 억울했다. 가난이냐 그렇다 쳐도 생명의 소리가 막혀버린 것이 너무도 억울했다. 아니 생명의 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이 서럽도록 억울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할진대 저들의 영은 얼마나 억울하여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나는 아니라고 이 글을 보는 누구도 발뺌하지 못할 것이다." 2011년에 출간한 필자의 책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에 소개한 억울한 사람들의 단편처럼 이

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에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천주교는 십계명의 1, 2, 3계명에서 기독교와 크게 틀리다. 다른 것이 아니고 크게 틀리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 차이가 난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질적이다. 따라서 세상이 같게 혹은 비슷하게 여기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오해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축복이 아닐까 한다. 축복(祝福)은 빌 줌에 복 자가 합쳐진 말로 이를 이으면 복을 빈다가 된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한다. 또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는 말씀도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나는 아니라고 이 글을 보는 누구도 발뺌하지 못할 것이다." 2011년에 출간한 필자의 책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에 소개한 억울한 사람들의 단편처럼 이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야만 하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대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그 어떤 존재란 없다. 그러기

할 수 없는 교만이다. 전제국가에 서는 왕이나 황제에게만 만세(萬歲)라고 찬양할 수 있었다. 세자나 태자에게는 천세(千歲)를 썼다. 만약 세자나 태자에게 만세라고 하면 그 즉시 반역이 되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야 하리라는 의미의 축복은 불충과 반역이며 또한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에게 빌 수 있는 축복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느라 모든 복을 다 소진하여 에서를 축복할 수 없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이슬 뿐 복을 빌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도 억울하다.

이미 망해버린 고구려의 유민이기에 한갓 환관의 얼토당토않은 모함으로 내려진 황명의 부당한 사형 언도를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며 하늘을 향해 외친 고선지 장군의 부하들처럼 이 세상에 살피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구원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외침이 너무도 처연하다.

억울함은 꼭 남에게 원인이 있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북한 땅은 과거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도 저주받아 동토의 땅으로 변하였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도하는데도 왜 아직 통일은 오지 않는지요?

A: 사실 평양은 지역하신대로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부흥회 때에 김선주 장로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기 전 아내 재산을 정리하여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다 상당한 돈을 사취하였습니다. 이날 김선주 장로는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였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장로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2시, 3시까지 진행되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전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선주 장로 회개로 시작된 평양대부흥...신사참배로 동토의 땅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과 같았던 이북 평양이 오늘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공산 정권이 철권으로 다스리는 저주받은 동토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는지요? 그 이유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조선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입니다. 신사참배 강요는 일본제국이 식민지, 특히 조선에 신사를 세운 뒤 조선인에게 참배하도록 강제한 일제 강점기의 정책입니다. 일제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부터 신사를 들여와 신사참배 의식을 행할 것을 장려했으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 종교의 교리와 관련하여 신사참배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용인해왔습니다. 그러나 1930년 후반에 중일 전쟁을 전후하여 기독교계 학교는 물론 교회의 성직자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기독교 각 교단은 강요에 굴복하여 신사참배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 국민례의 의의이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일 뿐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우상숭배인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가 옥사하는 등 일부는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를 결정한 평양은 공산정권이 지배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현재는 김일성 우상화 정책으로 김일성 우상이 36,500개가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 땅이 저렇게 저주받은 것은 신사참배와 김일성 우상 정책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아합왕 시절에 3년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등 기근 등으로 저주받은 것을 구약성경에서도 봅니다. 아직도 북한 땅에 통일이 오지 않는 것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말한 것처럼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 한국을 기도할 뿐입니다. 아직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되어지기에 통일을 위해 우리민족이 더욱 회개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시대에 전격적인 통일이오기를 기대합니다.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남북한 통일도 민족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억울하다!

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는 있지만 구원의 주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냐는 말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안(事案)이다. 적당히 말하거나 적당히 넘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판고 알고 부르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구슬픈 통곡으로 오늘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온갖 고통과 시련은 허다하다. 모진 가난과 처자식이 죽어나가는 비극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숨조차 스스로 쉬지 못한 채 의료기로 연명하거나 천만금을 쏟아 놓고도 맛있는 음식 한 입 맛껏 먹지 못하는 인생도 있다. 없어서 먹지 못하거나 먹어도 수 없이 먹지 못하거나 불쌍한 것은 마찬가지다. 생애 같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쳐다만 봐야하는 부모의 심정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도 불쌍하기는 똑같다. 여자피 인생은 고(苦)며 세상의 잣대로 말하는 공평은 없다. 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즉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망라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격을 갖췄다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일하게 되는 죽음의 공평이 있을 뿐이다.

요즈음은 거의 들어보기 어려운 비유가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다. 사람마다 삶의 이유와 죽음의 핑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는 말도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도 있다. 이제쯤엔 용수저 금수저도 나오고 범죄조직을 빚댄 이권단체나 그 배후가 불명예로 회자되기도 한다. 인생의 희로애락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너무나 그렇기 불쌍한 인생들에게 복음마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핑계하기가 어렵다. 슬프고 원통하여 하늘을 향해 샅대질을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는 처절함이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내가 션을 해봐

세상의 불공평이야 그렇다 쳐도 오직 하나뿐인 길이요 진리며 생명의 소리인 복음마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근자의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신자가 참 많다고 한다. 가난한 신자라는 말이 떠돈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감추고 싶은 치부를 날날이 드러내는 것과 같은 만큼 아픈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되 기독교 혹은 교회는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의 예배에는 안 나간다는 말인즉 이를 두고 신앙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의 문턱에서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의 수가 100만 이 넘을 것이아니 이 그 어떤 이유나 핑계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도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고참(?) 교인들도 많다.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2,30년 혹은 4,50년의 고참 교인이어야 가능하다. 중요한 사실은 그네들 중에는 교회의 문턱만 넘나들었던 종교인은 없을까 하는 점이다. 성경을 얼마나 보았느냐? 모든 공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금식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십일조 등 헌금을 떼어먹지 않고 잘 했느냐? 교회 봉사는 잘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아니다. 다시 말해 교인 즉 크리스천의 척도는 아니라는 말이다.

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한다. 그 생명으로 인한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할 실지라도 '따라나타! 주 예수여 시움소서' 쌍수를 들고 환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이 예수님의 이름에 달렸음을 분명하게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16:9)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깊은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 판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턱만 넘나든 사람은 그래서 억울하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모자랄 만큼 억울해야만 한다.

세상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같다고 여긴다. 유대교와 이슬람도 비슷하다고 한다. 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흰옷을 입었다하여 다 같은 백의민족은 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빌 수도 빌지도 않는다. 빈다는 말은 자기라는 존재보다 더 높은 대상에게 복을 빌어서 그 복이 필요한 자에게 임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도 성부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가 된다. 그러기에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님(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 다시 말해 성부하나님보다 높은 그 어떤 존재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망령됨이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가 아니라 있어야 한다는 불충이며 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억울한 것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나 상황이 지나버렸다는 점이다. 되돌릴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단 아직 살아 있다면 실낱같은 수도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기도 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 기회를 얻은 강도와 같이 행운을 움켜쥐지 못할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의 억울하다는 외침을 복음의 빛을 진 먼저 믿은 이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다.

hanmac@cmi153.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복음을
선교
합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담임목사 청빙 공고

본교회는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교회로서 목회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 격

- 1) 정국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 하신분(M.Div)으로 본교단(KAPC)에 소속 또는 KAPC가입 조건을 가지신분.
- 2) 담임목사 5년 경력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분또는 부목사 3년 -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분.
- 3)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가능하신분.
- 4) 영주권자. 시민권을 소유하신분

제출서류

- 1) 이력서(최근 2개월 이내 사진 첨부) 1부.
- 2) 목사 및 사모 신앙고백서 (성장배경, 신앙경력, 가족사항등) 각 1부
- 3) 목회 비전(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교회운영계획 등 포함) 1부
- 4)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5) 가족 소개서 (사진 포함)1부
- 6) 목회 안수 증명서 1부
- 7) 설교 CD, 2회본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2) 선임된 분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합니다.
- 3) 서류마감: 2월 29일까지소인

제출처

Attn: 동문교회 청빙위원회
East Gat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213-483-6675 (단 전화사절)

동문교회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네와르(Newar)



네팔어는 네팔에서 가장 문명화된 종족 중의 하나로써 네팔의 최초 원주민들이었다.

네팔어는 네팔에서 여러 가지 방언이 있으며 데바나가리 문자로 표기된다. 대부분의 네와르족은 힌두교도지만 불교도 또한 상당하다.

바주"로 알려져 있고 불교도인 네와르족 사제들은 "바즈라차르야"라고 불린다.

삶의 모습

카트만두 계곡은 인도와 티베트를 잇는 무역로 중심에 위치해있으며 대부분의 네와르족은 매우 뛰어난 장사꾼이거나 무역상인이다.

네팔어족이 행정구역이나 건축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관광 또한 중요한 산업이다.

한 양식을 발전시켜왔다. 그들은 나무 조각으로 장식을 하고 돌이나 금속조각품도 갖춰놓는다.

신앙

힌두교, 불교, 전통신앙이 네와르족의 종교생활을 이룬다. 힌두교는 네팔의 국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원을 받아왔다.

후에 개구리들에게 먹이를 주는 의식이다. 화장터와 십자로, 거대한 바위 등은 가장 귀신이 잘 나타나는 곳이라고 믿어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록 신약성경이 네팔어로 번역된 바 있지만 다른 기독교 자료들은 네와르족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최대교회 고요섭 목사 구금

중국 최대 교회인 총이당(崇一堂) 교회 담임목사 부부가 구금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31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텍사스에 있는 기독교 인권기구인 웨이화(華華)원조협회는 중국 당국이 지난달 28일 저장(浙江)성 성도 항저우(杭州)에 있는 총이당 교회의 고요섭(顧約瑟) 목사 부부를 구금한 사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협회 밥 후 회장은 "고 목사는 저장성 기독교협회 회장으로, 문화혁명 이후 중국 당국이 철폐한 최고위 교회 지도자"라면서 "그의 체포는 당국의 교회 탄압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총이당 교회는 공산당의 허가를 받은 중국기독교삼자(三自)애국운동위원회(일명 삼자교회) 소속인데 고 목사가 당국을 비판하자 삼자 교회는 최근 그를 제명하기도 했다.

저장성 당국은 2013년부터 삼자가 철거 캠페인에 나서 현재 1200개 교회의 삼자가가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또 구이저우(貴州)성 성도 구이양(貴陽)에 있는 역내 최대 교회인 휘스(活石) 교회가 지난해 말 당국으로부터 교회를 일방 가

점점으로 개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교회 쑤텐푸(蘇天富) 목사는 시 종교국 관계자가 교회 폐쇄를 요구했으며 신자들은 이번 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귀바오성(郭寶勝) 목사는 작년 12월 중국 당국이 지하교회는 물론 삼자교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탄압에 나섰다면서 이는 교회를 중국식으로 개조하려는 '기독교의 중국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인권·교회 탄압에 국가기밀누설 혐의 남용

중국이 인권 활동가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안보위반이나 국가기밀누설 혐의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성도 구이양(貴陽)시 공안 당국은 지난 22일 시내에 있는 휘스(活石)교회 양화(仰華) 목사를 '국가 기밀 고의 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 중문판이 28일 보도했다.

양 목사는 작년 12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5일간 구류된 후 적용 혐의가 공공질서위반, 국가기밀소지 등으로 계속 바뀌면서 구류 상태가 이어졌다. 양 목사의 변호를 맡은 천젠강(陳建剛) 변호사는 현지 민족 종교국이 양 목사를 엄중 감시하라고 휘스교회에 보낸 문건을 본 양 목사가 이를 인터넷에 올린 데 대해 당국이 국가기밀 고의 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안 당국은 작년 12월 9일 해당 교회에 대한 탄압에 나서 종교 용품과 표지판 등을 압수하거나 강제 철거하고 양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연행했다. 당국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한 탄압 과정에서 종교 서적들과 DVD 등을 다량 압수하기도 했다.

교회 측은 당국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지난 11일 민정국에 행정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교회측은 당국을 고소하는 등 소송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갈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외국인 인권 활동가와 반체제 기자 등을 탄압하는 데도 국가안보위반이나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 인권운동가 피터 달린은 중국에서 인권 활동을 벌이다 지난 3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다가 구류 20여일만에 석방돼 귀국했다. 그는 관영 중앙(CC) TV에서 "중국에서의 활동 과정에서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자백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스웨덴과의 외교 관계가 고려돼 추방 형식으로 석방됐을 것이라 관측이 나왔다.

앞서 중국의 유명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瑜·72)도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구금됐다가 작년 11월 7개월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됐다. 가오위는 작년 4월 불법적으로 얻은 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밀 문건을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후 관영 텔레비전을 통해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나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파리테러 악몽 프랑스, 이슬람 영화에 '청소년 관람불가'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근본주의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례적으로 '청소년 관람불가' 딱지를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이날 프랑수아 마르골름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살라피스트'(Salafistes)가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8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영화는 "때때로 참을 수 없는" 폭력 장면은 물론 알카에다와 그 밖의 극단주의 단체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내보내 이들의 선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문화통신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이 영화에는 7세기 이전의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리주의자(살라피스트)들이 9·11 테러를 옹호하거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손을 자르는 형벌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한 인터뷰가 담겨 있다.

당초 이 영화는 프랑스 남서부 비아리츠에서 열린 'FIPA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월 사들리 에브도 테러 때 숨진 경찰관의 모습이 영화에 나온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립영화예술센터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기자와 비평가들에게만 공개됐다.

국립영화예술센터는 또 이 영화에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과 경고 문구 삽입을 권고했다. 이에 제작진이 문제의 경찰관 장면을 뺀 수정본을 26일 다시 제출했으나, 플뢰르 펠랭 문화통신부 장관은 이 영화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죽여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없다는 이유로 18세 미만 관람불가를 고수했다.

프랑스에서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은 주로 포르노나 극히 폭력적인 콘텐츠를 담은 영화에 매겨지고, 다큐멘터리에 부여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 영화의 등급 논쟁은 프랑스가 지난해 11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를 포함해 여러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시달린 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NYT는 진단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자생적 지하디스트를 다룬 영화 '메이드 인 프랑스'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상영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살라피스트'의 청소년 관람불가 결정으로 상영관이 전국 30개 극장에서 3곳으로 줄어드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관람객과 언론도 논쟁에 가세했다.

파리 개봉 첫날 몇몇 관객들은 "이 영화가 악(惡)의 실체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용기를 보여줬다"고 극찬한 반면, "단지 (이슬람 극단주의의)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는 악평도 적지 않았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쇼아'를 만든 영화감독 클로드 란즈만은 일간 르몽드에 '살라피스트'를 옹호하는 글을 기고했으나, 또다른 일간 르피가로는 "이 영화는 표면상 싸우려는 대상인 살라피스트의 선전과 매우 닮았다"고 혹평했다.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메म्피스 연합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 1.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중 본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목사
2. 목회경험 5년 이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

제출서류

-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성장 과정, 신앙 여정 및 목회 경험에 대한 세부내용, 사진포함)
3.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 및 목회 방침 계획)
4. 설교 CD또는 DVD 2개
5. 목사 안수증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6. 추천서 1통

서류 제출방법

- 1. 제출 마감: 2016년 2월 5일
2. 서류 제출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Unite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777 S. Germantown Rd. Memphis TN 38141
3. 문의: 청빙위원장(이춘욱 장로)
전화: 901-570-0815
Email: edlee112@hotmail.com

www.ukpcmemphis.org

메म्피스연합장로교회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 취득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의회(IEA)로부터 목사안수 (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교육국 BPPE CODE 94874 (e)(1)인준학교

총장 이동규 박사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213)422-8916 / chongshinuts@gmail.com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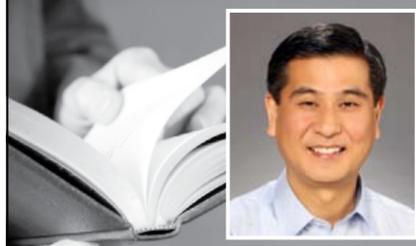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섬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5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6) - 325년 니케아 신조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의심할 바가 없다.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도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취된다. 그렇다면 신앙의 내용도 개인적인가? 아니다. 개인마다 신앙의 성격과 성숙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확실적인 신앙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답은 분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 내용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은 신앙인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문제는 그 방대하고 깊은 내용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만일 신앙의 내용을 터득하는 부담을 각 개인에게 전적으로 짊어지게 한다면, 이상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대단한 신앙적 인내와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까지 325년에 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는 교회의 중요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개인의 신앙을 위한 교

회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단의 출현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의회를 소집한 것이다.

물론 아리우스 주의자들의 주장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고심해야 했던 더욱 커다란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분열이었다. 분명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이고 성경도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할 진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단이 출현한 결과 사

은 각 교회가 처한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신다.

교회의 다양성과 사도신경 그렇다면 '교회의 다양성' 안에 '기본 진리의 다양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아니다. 신약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교회의 출발과 함께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이 그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어놓을 수 있던 기초적 진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오로지 하나였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었다.

초대교회는 '고백하는 교회'로 출발하였다. 이중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널리 알려진 것이 '사도신경(Apostles' Creed)'이다. 서신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성도들이 '사도신경'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을 함께 고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약 3세기에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다른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은 바로 성경의 핵심을 정리하여 신앙의 내용을 밝히는 일이다. 고백은 분명한 교리적 표준이지만 난해한 신학적인 해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각 시대의 교회는 처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성경적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무엇을 고백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 니케아 신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의 출현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들의 주장은 교회의 전통적 고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의 눈에 교회의 분열의 원인 제공자들은 바로 '고백적 교회의 파괴자들'이었다. 교회의 일치에 이단과 이방종교의 공격을 막아내고,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복음 중심의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편이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리우스주의의 이단적 주장을 대항하였던 세력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였으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지만 창조물은 아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마음을 함께 하였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강조한 것이다.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 교회 지도자들은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았다.

(14면으로 계속)

성경핵심 정리해 신앙내용 밝힌 신조가 '고백적 교회'로 남게 해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고백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

은 신학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들의 논의는 그리스도를 성부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주장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현대 교회 성도들의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오류이다. 하물며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신앙위에 세워져가던 초대교회를 책임졌던 지도자들에게, 아리우스의 의견을 따르는 자들의 헛된 주장은 어찌 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도적 신앙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하려는 자들의 규합된 힘이 생겨난 것이다.

4세기 초 초대교회가 분포되어 있던 지역은 대단히 넓었다. 복음의 확장이 활발히 일어난 결과였다. 각 교회가 지녔던 신앙의 성격은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제대로 깨닫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

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였다. 교회가 분열되며 아파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것을 주장하던 그들을 하나로 묶어두었던 분명한 힘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신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외침의 결과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비록 다양한 모습을 가진

작성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던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신조가 된 것은 5세기의 일이다.

교회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지만, 각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전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20)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물맷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였다

목자들은 두 가지씩 꼭 가지고 다녔다. 지팡이와 막대기이다. 양을 이리나 저리로 보호하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 그리고 목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물매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물매는 멀리 있는 맹수들을 쫓아버릴 때 사용한다.

물맷들을 던져 맹수들을 명중시키거나 코앞에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맹수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된다. 이렇게 물매는 멀리 있는 맹수들이 양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다. 다윗은 이 물맷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고대에 물맷들은 무기였다. 약

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이 물매 부대를 앞세우고 왔다. 이집트의 투탄카문 무덤에서도 물매와 물맷들이 발굴되었다. 물매는 그리스와 로마 군인들에게 중요한 무기였으며, 그들의 동전이나 벽화에서도 발견된다. 이스라엘에도 물맷들 부대가 있었다(대상12:2, 대하26:14, 왕하3:25).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저항하거나 데

모할 때 이 물매를 사용한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서 칼과 칼이 부딪히면서 칼로 목을 베는 장면을 연상하지만, 그런 전쟁은 많지 않았다.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게 하고 자기 칼을 다윗에게 준 이유는 다른 군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울 시대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만이 검을 가지고 있었다. 사울 왕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농기구나 몽둥이,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싸웠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에 들어서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싸웠다.

이 물맷들은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다. 400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한다. 화살보다 파괴력이 더 강하다. 갑옷을 입었을 경우 화살은 뚫지 못하지만 돌은 충격을 주어 적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시속 60마일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간다. 제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돌에 맞으면 한 방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물매는 새총 같은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다가 땅바닥에 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집어서 골리앗에게 휘 집어던졌는데, 그것이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그 돌이 다윗에게는 무기였으며, 다윗은 물매 던지는 실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 그리고 그 실력을 골리앗 앞에서 유

감없이 발휘하게 된 것이다.

다윗은 물매 실력이 남보다 뛰어나다. 그는 자신의 물매 실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겠다고 한 것이고, 칼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았는데도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 그러나 그만의 강점이 있었다. 물매 실력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그의 강점을 통해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했다. 그렇다. 우리는 강점으로 승부해야 한다. 도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6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1월 29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6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6년 2월 1일(월) - 3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목회서신

포퓰리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여승훈 목사

필자는 한국 정치 관련 기사를 가끔 읽으면서 한가지 떠오르는 용어가 있다. '포퓰리즘' (populism)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1891년 당시 미국 인민당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당장 눈앞의 국민들의 인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펼친 데서 시작 되었다. 한마디로 '인기 영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일 것이다. 인기 영합주의에 사로 잡혀서 국민들의 인기를 순식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우 도전적이며 신선택 보이는 정책들을 발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발표한 정책과 위배되는 선택을 스스로 자행하

는 것을 보면서 매우 씩씩한 마음을 느낀다. 그런데 인기에 영합하여 한 건씩 터트리는 포퓰리즘 사상이 어디 정치권에서만 일어나겠는가? 한국 기독교 안에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원한다.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혀 없었던 현금 없는 주일을 제정하여서 실행하는 교회가 있어서 한국교회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들마다 찬반 논쟁이 뜨겁게 토론되어지고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교회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와 교인다운 교인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필자는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현금 없는 주일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 그름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다. 이유는 옹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꿰뚫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이슈로 생각이 복잡해지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면 비본질에 대한 생각이 단순하게 정리된다.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자. 교인들이 자신들의 현금을 직접 구제하는 일에 집행하고 실행한다면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교인다운 교

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필자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로 교회다운 교회와 교인다운 교인이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현대 기독교가 목소리 높여 외치는 슬로건 중의 하나가 더욱 열심히 실천하자라는 말이다. 게으르고 불이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목소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게으르고 불이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히 진단해보면 그들의 게으른 성격이나 혹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력의 결핍 이전에 그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진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하고 실천적 의지력을 높이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보다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다운 교회와 교인다운 교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다. 교회다운 교회와 교인다운 교인이 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

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한다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홀리스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한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한다면 단순히 행사로 치르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동냥한다는 식의 얽박한 생각은 갖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결코 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한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께서 당신의 전인격을 감동케 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이 곧 당신의 형제와 자매로 당신 마음 안에 품어지게 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교회다운 교회와 교인다운 교인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과 교인다운 교인의 모습을 찾아내기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에 교인들은 점점 더 지쳐만 가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즐거이차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봉사 때마다 강조되어 나타나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가끔씩 언급 하는 정도로 지나가고 나머지는 주로 윤리 도덕 실천에 매어달리는 것 같다. 한 가지 꼭 기억할 사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진 채 행해지는 윤리실천은 교회다운 교회와 교인다운 교인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탄에 흔들릴 당하는 교회와 교인으로 전략해가게 될 것이다.

정치인은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을 즐겨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은 포퓰리즘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얻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분명히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교인은 교인다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구제의 손길에 온 세상이 진정으로 감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미국의 치유와 열방의 회복을!”

제 9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GIM/글로벌국제선교연합회(대표:정윤명 목사, 월넛크리치아이엠 교회 담임)가 주최한 제9회 올네이션스연합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1월 31일 오후 5시, 30여 교회 여러 민족 목회자와 성도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달리시티에 위치한 미얀마 교회인 First Burmese Baptist Church of S.F.(담임 Latt Yishey 목사)에서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며 성령리에 열렸다.



제 9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민족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날 메시지에서 주강사인 Dr. Rick Durst(Bay Area Campus Director, Golden Gate Baptist Seminary)는 여러 민족의 연합된 기도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치유와 열방의 회복을 역설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라티노, 루마니아,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중동 등의 30여 민족 목회자와 민족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이스라엘,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기도 내용과 각국의 당면한 심각한 기도 제목들(Prayer Issues) 요청과 발표와 회복을 위한

영성발표(presentation)가 있었다. 이어서 열방의 여러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각 민족 목회자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연합기도를 했다. 특히 이날 미국의 교회, 학교, 사회, 정부, 군인, 젊은 세대를 향한 영적각성과 미국 캠퍼스 복음화와 추구와 함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를 추구하며, 특히 동성애와 낙태 등으로 창조질서가 어지러워진 미국을 위해 GIM의 위원들이 새로 개정한 15개 미국 회복기도문을 Steve Willhite 목사(공코드 Parkhaven Community Church교회 담임)가 선언 발표했다. 한편 이날 메시지 전에는 한국

명성교회 정윤명 권사(여성교회 총연합회장)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는 오는 5월 제 9회 Global Multicultural Concert와 10월, 제 12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Global Int'l Missions Rally)가 이스트베이 월넛크리치에서 열린다고 광고했다. 정 목사는 "미국내 다민족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재부흥과 함께 열방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함께 결속해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미국 내 한인커뮤니티도 적극 참여할 것을 전했다. (기사제공: GIM)



LA카운티 정신건강세미나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정신건강 초기대응 훈련개요’ 주제

LA카운티 정신건강세미나, 강사 김수정

LA카운티 정신건강세미나가 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Reyna Leyva 커뮤니티 워커와 Edward Vidaurri LA카운티 정신건강 4구역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수정 트레이닝 코디네이터가 강사로 나서 '정신건강 초기 대응 훈련개요 강의와 정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수정 코디네이터는 "UCLA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 중 한국인은 17.5%에 달한다"며, "자살을 결정한 자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살을 결정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인들의 경우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도는 인식하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게 된다. 정신질환 문제는 의지나 신념으로 이겨낼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정신질환에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의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횟수는 많지만 실제로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횟수는 많지 않지만 자살

율은 높다.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자살의 비율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LA정신건강국에서는 정신건강 초기대응훈련(Mental Health First Aid, MHFA)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MHFA는 총 8시간의 교육과정으로서 정신질환 혹은 정신적 위기의 신호나 증상을 보이는 이를 초기에 돕는 법을 교육한다. 미국 전역과 여러 나라에서 정식 인가된 트레이너들을 통해 다양한 정신질환들과 약물중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건강 초기대응 수료증 과정이다. LA카운티는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MHFA과정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양은 2월 10일(수)과 11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The California Endowment(1000 N. Alameda St. LA)에서 하루 4시간씩 이틀에 걸쳐 제공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이나 교육계 종사자, 종교기관 리더, 지역사회단체의 회원들이 단체로 수강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213)251-6422/김수정 트레이닝코디네이터, (213)251-6864/김재원 트레이닝코디네이터 (박준호 기자)



갈보리장로교회 새성전 입당예배에 앞서 찬양을 드리는 참석자들(상) 아래 좌측부터 말씀을 전한 김영수 총회장, 담임 조은철 목사, 김금봉, 박현애 권사.

라스베가스 갈보리교회 새성전 입당

1만sq...6천sq 예배당과 교육관, 친교실

라스베가스 갈보리교회(담임 조은철 목사) 입당감사예배 및 권사 임직식이 지난 26일 오후 5시에 있었다. 교단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원근각처에서 달려온 축객들로 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예배, 권사 임직, 축하의 순서로 진행됐다.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양수철 목사(에버그린 선교교회담임)가 기도한 후 김영수 목사(KAPC 총회장)가 '열심부서 같은 사람들'(잠25:13)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금봉, 박현애 권사 임직식을 가졌다. 조은철 담임목사는 두 임직자와 교인들의 서약을 마친 후 임직패를 전달했다. 이날 정진구 목사(유마 한인교회), 하태수 목사(엘

파소열린문교회)가 임직자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한 뒤 김금봉 권사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4년 8개월의 시간을 거쳐 완공된 성전 입당식은 온 성도와 참석자들의 감동의 시간이었다. 박의찬 장로의 교회 연혁과 건축보고를 받는 참석자들은 그간의 수고와 애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눈시를 감동하며 감사하며 하직할 씨의 특별 연주와 박미나 집선교사의 찬양은 이날의 기쁨을 한층 북돋아 주었고 멀리 한국에서 온 김재연 목사(갈빈신학교 총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 교회 담임 조은철 목사는 "이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다.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을 언제나 견디게 하셔서 일어나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수많은 분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 이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갈보리교회는 1993년 8월에 설립됐다. 상가 건물을 임대해 예배를 드리던 본 교회는 1993년 현재의 부지를 구입해 부지내 집을 개조해 성전으로 사용하다 지난 2011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나 준비됐던 건축현금은 공사를 시작하지 얼마 못되어 바닥이 나고 공사 중단의 위기를 겪었으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교인들도 보헌, 적금 등을 해약해가며 성전건축을 이어갔다. 이 소식은 이웃교회에도 전해져 현지 교회들도 심심일만 돕게 되어 감격스런 완공을 보게 됐다. 새 성전은 1만 스퀘어피트 건물로 6천 스퀘어피트 예배당과 나머지는 교육관과 친교실로 사용된다. (기사제공: 라스베가스 갈보리교회)



문화선교원 시전이 출간한 제2연합시집 '아가무'출판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성금 모아 중국선교 후원

시전 제2연합시집 “아가무” 출판감사예배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시인)이 출간한 제2연합시집 '아가무' 출판감사예배가 1월 26일 오후 6시 30분 한인타운 내 용수산 식당에서 60여명의 동인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한나 동인의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공정범 목사(엘메델마누엘교회)의 만찬기도, 신병욱 목사(로스펠리츠교회)의 개회기도, 정우성 목사(광명교회)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란 제목의 설교, 최선호

이인미 대표는 연합시집의 제목을 '아가무'로 정하면서 "이번 연합시집을 통해 우리에게 시와 찬미를 주시고 펜을 들어 소통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말하고 "오늘 출판감사예배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모두 중국선교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2016년도 봄학기 오픈하우스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정인옥 박사)는 오픈하우스를 1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LA 캠퍼스(2116 Arlington Ave)에서 가졌다. 오는 3월에 시작하는 2016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을 위해 마련된 오픈하우스에서는 신학, 음악, 경영학, 법무행정, 유아교육, 컴퓨터사이언스, 스포츠경영,

웹디자인 등 학사과정과 목회학, 음악, MBA 등 석사학위, 그리고 목회학 박사과정에 대해 각 학과 교수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에나하임에 위치한 본교 캠퍼스에서 오픈하우스를 가진 바 있다. 학교입학 및 편입에 관한 문의는 (714)683-120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오픈하우스가 LA캠퍼스에서 열렸다

동부교계 기사판



퀸즈장로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설립 42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2월 28일(주)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장로 2명 등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도 함께 열린다.

▲문의: (718)886-4040

'스마트 키츠' 개강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운영하는 '스마트 키츠'가 2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린다. 이번 자녀들을 위한 학업(PARCC Test) 및 사회, 정서적 연결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5학년들을 대상으로 PARCC 시험 준비 및 어린이를 위한 리더십 스킬과 소셜 스킬을 가르친다. 수강료는 200달러. 한편 패밀리터치는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201)242-4422

"We the Messengers" 내 사자를 보내리니...

GKYM 2016 로체스터 12월 27-30일

2016년 세계한인청년선교축제 GKYM(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이 12월말 로체스터에서 열린다.

GKYM은 전세계에 흩어진 차세대 청년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세워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나이아가라에서 시작한 GKYM은 그동안 대 대회마다 2-3천명이 참석해, 1천여 명의 단기선교사, 1백여 명의 장기선교사를 배출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플래시 대 동연회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번 GKYM 대회의 주강사들과 사무총장 이동열 선교사, 행정팀들이 참석해 2016년 로체스터 대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와 함께 GKYM을 시작한 김혜택 목사(뉴욕총신교회 담임)는 "1세 목회자들이 시작한 GKYM이 점차 1.5세와 2세 목회자들로 리더십 체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2016년 대회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정팀장 김은열 목사(뉴욕총신교회)는 지난 대회들을 소개하고 이번 대회에는 1.5세, 2세들이 많이 참여해 문화적으로 2세에 맞는 대회를 밸런스를 맞추고 타민족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GKYM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소개한 노희송 목사(토론토큰빛교회 담임)는 임현수 목사에 대해서는 CNN보다 외에는 아는 게 없다며 GKYM을 전적으로 후원한 임현수 목사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민용 목사(쿠버넌트헬로우십교회 담임)는 올 대회의 포커스는 1세에게 받은 은혜를 1.5세, 2세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GKYM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노승환 목사(토론토밀알교회 담임)가 설명했다. 청년전도에 대한 질문에는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가 답변했다.

GKYM은 매년 서부와 동부에서 격년제로 대회를 열 계획이며 올 로체스터 대회에 이어 2017년에는 서부에서 열게 된다.

한편 그동안 KWMC 대회가 개최될 때 GKYM이 함께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번 여름 남가주 KWMC대회에는 하루를 GKYM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으며, 2017년 서부 대회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대회 주제는 "We the Messengers", 주제성구는 말라기 3장1절(...내 사자를 보내리니...), 일시는 12월 27일(화) 오후 3시부터 30일(금) 오후 12시까지이며, 장소는 리버사이드 컨벤션 센터. 회비는 10월말까지 200달러다.

강사는 이날 참석할 한인 강사 외에 프랜시스 찬, 마이클 오, 데이빗 플랫 등이 섭외중이다. (유원정 기자)



GKYM 2016 로체스터 준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부터 노승환, 정민용, 박형은, 김혜택, 노희송, 이동열, 김은열 목사. 뒷줄은 행정 간사들.

"주님의 지상최대명령 준행하겠다"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하례만찬

뉴욕교협이 지난 28일 저녁 7시 대동연회장에서 신년감사예배 하례만찬을 가졌다. 예년과 달리 기도회로 한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그대로 하례만찬으로 진행했으며 경품을 팔지 않고 주침으로 상품을 나눠준 것은 예년과 달라졌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신년사에서 "2015년을 무사히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2016년은 전쟁과 미움, 테러가 없고 사랑과 화해,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노력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속화와 인본주의, 동성결혼,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신비주의를 따라하고, 상실한 윤리성을 회복하며, 사이버 이단들을 과감히 척결하여 진리를 사수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최대 명령을 준행하는 뉴욕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하례만찬에서 회장 이종명 목사가 신년사를 하고 있다.

했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홍석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순재 목사, 성경봉독 이상호 집사, 찬양 케리그마중창단, 설교 김남수 목사, 특별합심기도 최창섭 목사(조국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유영진 목사(한인사회와 청소년을 위하여), 주효식 목사(교계와 진리수호를 위하여), 봉헌기도 유일용 장로, 현금송 오희평, 축도 홍상설 목사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남수 목사(경증회장, 프라미스교회 담임)는 "세월을 아끼라!"(엡 5:15-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시간의 속성은 ①속도가 같다 ②쉬지 않고 간다 ③같은 방향인 앞으로만 간다는 특성이 있다"며, "하나님께

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2016년에는 겸손과 화평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교회



뉴비전청소년센터 중독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원대 연수팀과 중독회복 청소년들이 기념촬영 했다.

강원대 연수팀, 뉴비전청소년센터 중독프로그램 참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지도교수 및 학생 15명과 한국중독협회 사무총장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뉴비전청소년센터(대표 채왕규 목사) 중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1일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은 2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채왕규 박사의 중독강의와 중독 기관들을 방문해 현장 청소년들의 간증을 들었다. 연수팀들은 뉴저지 캠프 중독기

마다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는 총무 박진하 목사 사회로 미국(김종구) 한국(배정호) 국가 제창이 있던 후, 이종명 목사가 신년사를 하고, 내빈으로 권기영 뉴욕부총명사, 이의철 뉴저지교협회장, 그레이스랜드 뉴욕연방위원회의원 보좌관, 론김 뉴욕주하원의원, 피터구 뉴욕시의원, 이형관 캐나다온타리오교협회장, 김영환 뉴욕목사회장, Sal Scarato 미합중국사회장이 축사했다.

이어서 공로상 포상에는 목회자상 황경일 목사, 평신도상 이주익 장로, 순석완 장로가 받았으며 박성하 목사의 축가후 이상호 이사장이 교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3부는 백창진 목사의 만찬기도 후 경품추첨이 있었으며 한준희 목사의 광고가 있던 후 허걸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강태욱 대표가 뉴욕을 방문한 한서대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이노비, 한서대 학생들에게 문화 복지 특강

지난 27일, 글로벌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뉴욕을 방문한 한서대학교 학생들에게 문화복지 특강을 개최했다.

이노비 맨해튼 오피스에서 두 시간 동안 펼쳐진 특강에서 강태욱 대표는 "이노비 뉴욕의 선진 문화 복지를 한국의 학생들에게 알리고 나누고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기 원

한다"며, 이노비 뉴욕은 물론 한국에서의 활동 등 이노비의 활동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문화복지 활동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Q&A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뉴욕을 방문한 한서대 학생들은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전공생 4명으로, 한서대 특성화 글로벌 현장 실습과정의 일환으로 박희현 교수 인솔 하에 10박11일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

이호현, 이상훈, 송유영, 이하경 4명은 성적 및 학과 참여도 에세이와 면접 등을 통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27일 특강에 이어 28일 이노비와 함께 맨해튼 드윌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힐링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새생명선교회 신년하례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생명선교회 신년하례예배

뉴욕지역 암환자들 모임인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2016년을 맞아 지난 1월 28일 플러싱 합작 식당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진 예배에서 이순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영생에 대한 감격과 확신을 갖고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한

해로 만들자"고 권면했다. 새생명선교회 대표 심의례 전도사는 "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신안정적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새생명선교회가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사제공: 새생명선교회)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성경통독부터 다민족기도회까지

OC교협 2016년도 사역계획 발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가 2016년도 사역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 로스코 오테 컨트리클럽에서 OC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마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승기 회장은 "2016년도 교협은 섬기는 교협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서기 박용일 목사는 "세크라멘토 주의회에서 열린 미주 한인교의 날 감사예배를 교협주관으로 열었다. 그날 한인들이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오는 3월에 열리는 성경통독 인턴시브코스는 OC지역의 교회들의 영적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열게 된다. 지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소망이고 살길임"



OC교협은 2016년도 사역계획을 발표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회장 조형수 목사는 "미주지역에 수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이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은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임현수 목

사기 북한에 억류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임목사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체가 없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생명찬교회에서 열린 구속사적 성경관통 바ível 네비게이션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동일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남가주새언약교회 5주년 기념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케익커팅을 하고 있다

총 7개 비전선언문도 선포

남가주새언약교회 5주년 기념예배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교회설립 5주년 기념예배를 1월 31일 은혜가운데 개최했다. 기념예배는 지난 5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찬양과 더불어 강양규 담임목사가 사도행전 28장 16-31절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는 총 7개의 선언문으로 된 '2020 비전선

언문'을 전교인들이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새언약교회는 6가와 카탈리나에 있는 로얄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배시간은 매주일 오전 11시, 수요일과 금요일 각각 저녁 8시에 성경공부모임과 기도회로 모이고 있으며, 매일 새벽 5시30분(월-금)에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한국학교 모임을 하고 있다.

▲문의: (213)434-1083

(기사제공: 남가주새언약교회)

갈보리믿음교회, 노아선교단 찬양콘서트

노아선교단(대표 정래욱) 찬양콘서트가 1월 29일(금) 오후 7시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우 목사)에서 열렸다.

박갑수 목사는 "노아선교단이 한국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좋아해주시는 모습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생은 "처음 갖는 공연이라 떨리고 걱정도 많았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게 됐다.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저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박수도 쳐주는 등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았다.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부교계 게시판



세계한인침례교 선교대회

세계한인침례교 선교대회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대회는 미주남침례교회연합회 총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가 주최하고 미주해의선교부와 한국해외선교회가 주관한다. 참가비는 일인당 390달러(부부 600달러), 신청은 이메일

yoyungic@hotmail.com.

선교대회를 마치면 창조과학 탐사 등 관광코스가 있다.

▲문의: (302)222-2683

미주두란노 이스라엘 성경 세미나

미주두란노세미나팀이 주최하는 이스라엘 성경세미나가 2월 6일(토) 아리조나야방교회, 13일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에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송만석 장로(온누리교회)이며 등록비는 10달러.

▲문의: (213)235-1088

이즈키엘 극단 연극 '귀향' 공연

기독교연극사역단체 이즈키엘 극단(단장 전수경)은 연극 '귀향'을 오는 27일(토)과 28일(주) 양일간 이즈키엘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소망의샘 어린이집 기금모금을 위해 열린다. 티켓은 온라인(www.ezekiel.la)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213)200-0021

유니온교회 2016 심령부흥회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 710 N. Lark Ellen Ave) 2016 심령부흥회가 12일(금)부터 14일(주)까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강사는 차준희 목사(한국구약학회 회장, 한세대 구약학 교수, CBS성경사랑방 강사).

▲문의: (626) 858-8300

조이장애인선교센터 세미나

조이장애인선교센터(디렉터 변연경 전도사)는 장애인 복지해택에 관한 세미나를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갖는다. 장애사역 담당 사역자, 교사, 자원봉사자,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 기타 관심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이시연 박사(칼스테이트 LA 사회복지학 교수)이며 등록비는 없다.

▲문의: (714)525-0569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세미나 리딩세션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가 주최하는 세미나 리딩세션이 7일(주)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EM에배실에서 열린다. 교회 지휘자(선착순 60명)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의 강사는 서병호 교수(남가주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윤임상 교수(윌드미선대학교), 김재숙 작곡가. 화비는 20달러(간식, 빛나라 17집, 찬양하라 부활의 주, 부활절축제 제공).

▲문의: (909)908-1673김형직, (714)336-4731김원재



갈보리믿음교회에서 열린 노아선교단 찬양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갈보리믿음교회 찬양팀과 박갑수 목사와 함께 찬양을 금요예배시간에 열렸으며 노아선교단의 찬양과 울동이 가미된 퍼포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침례교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오후 8:00(일)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영성)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m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예배: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철은이예배: 오후 11:20 영아권(장소:KDC, 필딩드빌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며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회예배: 저녁 8:00 수요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8-7728, Fax: (213)210-688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8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949)857-2009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00(영성)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i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1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얼빈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49)857-9425, Fax: (310)370-2009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염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27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성서강좌: 365일 24시간 온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언약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5:50(월-토) 성령강좌: 오후 7:20(일) Tel: (213)325-4020, Fax: (213)325-4025 28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i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학교: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Lomita Blvd., Torrance, CA 90015 www.gjcc.org	종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목회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9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0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encej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이슬람 확산 등 지역교회 연합해 대처”

경기총 등 17개 지역 기독교연합 대표 결의

서울 부산 등 17개 지역 기독교 연합회 임원 30여명은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4층에서 '2016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 자회'를 열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람 확산 등 주요현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교계의 의견이 정부 정책이나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달부터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총선 후보에게 기독교 현안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교인들이 4월 총선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장과 군수, 교육감과의 면담도 요청하고 기독교 현안에 대한 강의나 집회도 열기로 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반(反) 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선 지역교회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원영 부산대 교수는 당면과제 보고에서 지역별 '동성애대책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가톨릭, 불교 등 범종교계가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시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승규 장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김 장로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 옹호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에이즈 위험 국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가족 개념을 추진하고 있어 비정상적 결혼과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역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며 "지역연합회와 교회들이 깨어서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슬람은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등 테러리즘적 요소를 갖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연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자진납세운동을 실천해 국민의 의무는 감당하되, 정부

가 교회에 간섭하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통합도 추하기로 결의했다. 또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다음 모임은 3월 10일 낮 12시 부산에서 갖기로 했다.

한편 경기총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2016 경기도 신년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명성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명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총은 오는 3월 은퇴·원로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한 '경기도목자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 설립 30주년사 편찬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무당국’ 으로 국운을? 국회서 굶판…

여당 종교위원장이 주선, ‘재수국’ 1시간 가까이 벌여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이재재 의원의 주선으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사당에서 굶판이 벌어졌다.

국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벌어졌다. 이 의원이 주선하고 한국역술인협회(회장 백운산)가 펼쳤다. 국가의 복을 빌어준다는 명분이었다. 이날 진행된 국운 '재수국'이었다. 집안의 평안, 가족의 화복과 건강, 생업의 번성 등을 기원한다는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원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한 개 국회 굶판의 취지였다. 이날 행사에는 개 주조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이외에 역술인과 도인, 무속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국판을 벌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는 구한말 궁궐에서 명성황후(민비)가 국판을 벌이다 제정을 파탄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한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개탄했다. 또 "2016년 병신년 국운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속행위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연론회는 또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시작됐다"며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제헌국회 제1차 회의의 개회사에서 임시의정원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며 미신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수국을 한 무속인 오민경씨는 '공수'(신 내린 무당이 신의 소리를 내는 일)를 통해 국운을 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는 "병신년은 정치·사회적으로 시끄럽다"며 "큰 사고가 한두 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수국은 네 개 마당으로 나뉘어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한국역술인협회는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고, 4월 총선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새해 희망찬 새 출발과 함께 여가 이 시대 사명자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제2회 2016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를 본 주조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나라의 미래를 점치는 국운발표회를 열고, 재수국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종교화합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건(경기도 의왕 예전교회) 목사는 "공공기관인 국회에서 국판이 벌어진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는 "전통 보존 차원도 아니고 '국운' 운운하며 국회에서 정식으로 무당 굶운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재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인의 요청을 받고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중남미지역 파송선교사 이종교적 문제 해결

예정통합-해외한인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지난 18~22일 미국 하와이에서 해외한인장로회(KPCA·총회장 김중훈 목사)와 선교협의회를 갖고 "통합 교단이 중남미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가 해외한인장로회 교적을 취득할 경우 해외한인장로회 소속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을 체결했다.

다만 한인교회에서 시무할 경우엔 해외한인장로회 소속으로 할지, 통합 교단 소속으로 남아 선교동역자로 활동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교단의 이종교적 문제는 그동안 풀지 못한 숙제였다. 또 통합 교단 목사후보생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공동인턴과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코엑스역으로...” 천만인소 1천여명 동참

1천명 넘겨 공식청원 돼 시 담당부서로 안전 넘어가

서울천만인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창구다. 시민이 청원을 등록한 후 30일 내에 1000명 이상의 지지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원 찬성 절차가 까다로워 2013년 시행 이후 2359건이 제안됐지만 '동성애축제 반대' '한강변 신축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철폐' 등 굵직한 이슈 17건만 1000명을 넘겼다.

코엑스역명추진위는 2일 "천만인소는 단순히 온라인 인기투표가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 참여할 수 있는 청원제도"라며 "지난달 7일 시작한 청원에 1018명이 찬성의사를 밝힌 것은 코엑스역으로 역명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천만인소 관계자는 "봉은사역을 코엑스역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은 찬성자가 1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로 안전을 넘긴 상태"라며 "정책대로 회나 시장과의 주말메이트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천만인소가 시민들의 관심으로 성립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면 채택될 수 없다"면서 "채택된 안건은 14일 이내에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코엑스역명추진위원장은 "강남구청이 오는 22일부터 2주 동안 역 변경 500m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역명번호도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삼성동 주민들에게 천만인소의 결과를 적극 알려 코엑스역으로 역명을 꼭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간 5091만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코엑스 대신 일개 사찰에 불과한 봉은사를 역명으로 확정된 서울시의 행정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봉은사 미래위원장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천만인소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산 할랄식품 단지 중단” 1000만인 서명운동

한기총 등 60여개 단체 세종정부청사서 기도회

이산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문영만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등 전국 60여 단체는 28일 오후 3시 세종시 국무조정실 정문 앞에서 '이산 할랄식품 단지 반대 특별기도회'를 열고 "정부는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해 할랄식품 단지 백지화를 위한 전국 10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할랄식품 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15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1월 프랑스 테러를 비롯해 9·11테러 등 수많은 테러의 90%가

무슬림에 의해 일어났고, 유럽 각국 정상들은 무슬림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문제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한반도 이슬람화의 교두보가 될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통해 이슬람의 포교 전략에 일조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산시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60여 단체는 정부가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멈출 때까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천명

했다. 성명서 낭독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문영만 대표회장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주제로 설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정희(의산)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할랄식품 단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수요가 없어 당장 조성할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사) 진리대한당(대표 이석인 목사) 등 기독교 정당 간의 합당이나 연대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독교 정당들은 그 동안 원내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기독교당 1.2%, 한국기독교당 0.25%에 그쳐 각기 비례대표 확보에 필요한 3%에 미달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기독교사람실천당이 44만3705표를 얻어 전체득표율의 2.5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보수신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겨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불평등한 사회에 평화와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한기총은 경찰청과 업무제휴(MOU)를 맺고 희생 또는 부상당한 경찰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대표회장은 "그간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드려왔으나 이번에는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면서 "절약한 예산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 현안을 질의해 잘못된 답변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영 기독교자유당 사무총장은 "3월 1일 서울에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반드시 4·13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김춘규 사방의손잡기운동본부 이사장의 취지문 낭독, 이용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장과 전 공동총재의 축사, 신신목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기독교민주당(대표 박두식 목

지도력은 언제나 교회에서 나왔다"며 "한국사회의 현실이 어둡고, 기독교가 갈등을 거듭하며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 대표회장이 은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가슴에 품고 희망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계 및 정·관계 인사들의 축하 및 당부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도 상영됐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이웃 섬김' 등을 위해 힘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조일래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이 대표회장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은 "교권다툼과 연합기관의 분열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한국교회 화합이 최우선 과제”

한기총 이영훈 제21대 대표회장 취임예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1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일 서울 종로구 김삼옥로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화합을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모든 기독교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며 영적 지도력의 회복을 위해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개혁과 갱신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동성애를 앞장서 지지하고 할랄식품을 통해 들어오

는 이슬람 문화 확장을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회장은 "저출산 및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가정·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교단의 교회들이 예산의 1%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명예회장 조용기(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때가 요구하는 지도자"(마28:16-2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등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라를 이끈 정신적

세계성령중양협 제28대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 취임감사예배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양협의회 제28대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의 취임감사예배가 2월 1일 오전 11시 새에멘교회 비전홀에서 열렸다.

배진기 목사는 취임사에서 "세계성령중양협의 설립취지에 따라 선배목사님들이 이루신 영적 토대위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개혁을 위해 미려이나마 힘을 다하겠다"며, "이벤트가 아닌 무브먼트(movement)의 성령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예배는 상임회장 박승순 목사의 사회로 신학위원장 고세진 목사의 기도, 감사 정경양 목사의 취지문 낭독, 공동회장 손광호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사도행전 2:1-4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의 급진부 성령운동, 부흥운동"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

했다. 소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에 목회 생태계와 환경 복원, 교회 개혁과 부흥,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이 꼭 필요하다"며, "세계성령중양협의회 목회자들로부터 성령의 불씨,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한국교회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공동회장 권경환 목사의 인도로 세계성령중양협의회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부회장 유진기 목사의 봉헌기도에 이어 증경대표회장 강현식 목사는 신임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의 약력을 소개하고 고문 민경배 목사가 취임증서를, 이사장 안준배 목사가 취임패를, 직전대표회장 정인찬 목사가 법인기를 전달했다.

교계 각 기관의 축하패도 전달됐



세계성령중양협 제28대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에서 배진기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세계성령중양협의외 일반관서회장 유봉호 목사, 29명의 세계지회 회장단을 대표해 부회장 남준희 목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정경양 목사가 축하패를 전달했고, 고문 민경배 목사, 직전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증경대표회장 권대진 목사, 증경대표회장 오병열 목사가 격려사를,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공동회장 이호선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신임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는 직전대표회장 정인찬 목사에게 조대회장 김우영 목사를 기념하는 '김우영공로상'을 시상했으며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의 광고, 증경대표회장 김용완 목사의 축도모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양협의회)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특별기고



김기원 목사 (사)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총재

내가 바라는 2016 인생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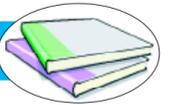
가고 오는 세월 고장이 나거나, 정전되거나, 충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0.001초도 차질없이 가는 시간. 우리는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또다시 맞이해야 합니다. 저지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갑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도 시간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며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낸 시간 후회가 없고, 맞이하는 시간 희망찬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나 앞으로의 세월속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 보지 못했던 최고의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싱싱 퍼둠퍼둠한 청춘이라도 세월이 굴복하지 아니할 자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찾아오는 늙음을 막을 길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가능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주어지는데 포기한 삶을 살거나, 그냥 흘러 보내는 것은 때만 중 태만이고, 생명의 가치를 낭비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되 계절의 바뀜이나, 또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힘겹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대다수가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과 역경 속에 인격이 자라고 심신이 강건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며, 파도에 의해 바다 속이 숨을 쉬고 순환이 되듯이, 바람도 폭우도 다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사랑하고 싶은 대상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해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사랑을 많이 실천한 해로 가득 채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둡고 황량하고 또는 거칠어지던 광야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도, 사랑의 속삭임 속에서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높이 사랑하며, 사랑의 지경을 더 넓은 곳으로, 더 넓게 확장해 나간다면,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때, 교제의 행복과, 섬기는 보람 속에, 헛되지 않는 인생,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삶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상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늘이 도우는 공존이 가능하고 평화가 있는 땅과 삶이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서로 서로를 믿는 상대적(관계적)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의 키워드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다 방면의 이유가 정

직 실증에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적 교육계 범조계 경제계 문화계(예술)등이 정직하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사고 내지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필연코 돈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돈 부정이 숨겨져 있거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믿을 수 있는 사회나 조직 공동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과 소망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바라고 싶은 것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바라며 할 것을, 꼭 풀어야 할 꿈을, 그리고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는 수준 높은 비전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살며, 그 다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는 개처럼 죽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죽어야 합니다.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은 소망이 확실한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윌리엄 버클레이의 시에서 나오는 구절처럼 "신이여!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소서...나의 시간을 선한 일에만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폭력, 말의 공해, 언어사기 등 좋은 용어는 용어의 뜻과 반대로 가는 단체나 조직에서 먼저 순발력 있게 선수 쳐 사용해보려는 언어혼란, 언어사기, 문자언어 공해 속에 언어순화 운동, 생각과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성질 급한 민족의 단점이 말해버리고 생각하니 이미 옆질러진 물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의 체질이 아니라 진실과 성실의 체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정성과 영성이 깊어지며, 육안과 지안과 영안이 열려있고, 지각과 자각과 영각이 향상되고 변질이 아닌 변화, 퇴보 아닌 진보, 중단 아닌 전진,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과 충성의 나날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천통, 인통, 소통의 해, 슬통, 밥통, 영통, 형통의 해가 되며, 먹통(불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먹는 즐거움(밥맛), 잘 자고 쉬는 즐거움(밥맛), 대화의 즐거움(말맛)이 정치, 교육, 문화,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며, 남북이 소통되고, 자유와 민주가 정착되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가족들이여! 우리의 복된 정체성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비취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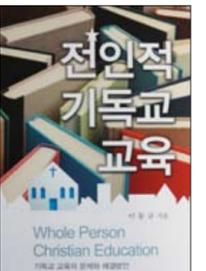
새책소개



"전인적 기독교 교육"

저자 이동규 목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부모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접근한 책이 출판됐다. 남가주에 위치한 앵거한인교회 담임이자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동규 목사는 지난해 11월 '기독교 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담은 "전인적 기독교 교육"(말씀서원 펴냄)을 출간했다.



이동규 목사는 본서에서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많은 목회자나 교사들이 알지 못해 방황을 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주며, 올바른 길

기독교 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 답아

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인적 기독교 교육이 가정에서 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본서를 통해 은혜의 시대에 가정의 신앙적으로 올바른 세우지고 교회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우리들의 자녀, 즉 후손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서는 제 1부 기독교 가정교육의 역사적 고찰, 제 2부 전인적 기독교 교육, 제 3부 가정교육의 역사적 고찰, 제 4부 기독교 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구성됐다. 이 책을 추천한 풀러신학교 겸임 박사(가정상담·한국가족학 교수)는 먼저, "현재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의 근저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학적 성숙성의 결여와 윤리의 부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받은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에 기초한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교육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엄 박사는 "이제라도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육과 가정사역을 잘 실시해 교회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신학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주입하고, 동시에 가정을 잘 세워서 건강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잘 시키게 한다면 미래의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규 목사의 저서 "전인적 기독교 교육"의 구입문의는 chongshinuts@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팔레스타인 내부갈등, 이-팔 폭력사태 주 원인

(2면에서 계속)

게다가 압바스 수반은 정통성마저 의심 받고 있다. 10여 년 전 PA 수반으로 선출된 그의 임기는 2009년 만료됐다. 파타당이 지배하는 서안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가 통치권을 장악한 가자지구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선거가 언제 실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압바스 수반은 전투로 다져지고 호전적이었던 전임자 아세르 아라파트와 비교하면 다소 학구적이고

침착한 이미지를 풍긴다. 그는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아주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라말라에 있는 정채연구소 '마사라트'의 하니 마스리 소장은 "압바스의 발언은 국민을 이끄는 자치정부 수반이라기보다 정치 평론가처럼 들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압바스 수반이 공격을 부추긴다고 비난했지만 압바스 수반의 정치 고문 니르르 하마드는 뉴스위크에 압바스 수반이 새로운 봉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인

티파다는 팔레스타인의 이익이나 이-팔 화해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길 원한다." 압바스 수반은 최근 파타당 내부로부터 이스라엘에 더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시위의 조직을 도왔던 파타당의 관리 나임 무라르는 압바스 수반이 이스라엘군과의 보안협력 중단을 요구한 지난해 PLO의 결정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라르는 또 압바스 수반이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제품의 불매운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민중 봉기에 호응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무라르는 덧붙였다. "압바스는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국민을 이끌지도 않는다"고 마사라트 연구소의 마스리 소장은 말했다. "그는 부차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 있다. 리더십이 미궁에 빠지고 지도층은 어쩔 할 바를 모른다. 그들은 국민에게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 행동에 나섰다." 하마드는 주요 국제기구와 강대

국[특히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과 러시아를 설득해 이스라엘이 서안의 새로운 정착촌 건설과 기존의 유대인 지역사회에서 진행 중인 건설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압바스 수반의 전략이라며 맞섰다. "이스라엘 측이 유대인 정착촌 동결과 합의안 이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우리는 이 분쟁이 국제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마드는 말했다. 한 고위 PA 보안 관리(정치적 문제를 논할 권한을 부여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명을 요구했다"는 뉴스위크에 이렇게 말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압바스

수반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는 자신이 국민의 지지를 100%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역할은 국민을 A지점에서 B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B가 A보다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PCPSR의 칼리 시카키 소장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그는 "2016년은 2015년보다 상황이 더 나쁠 것"이라고 말한다. 폭력이 어느 정도 고조될 것인가에 이-팔 갈등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요소가 팔레스타인 내부의 갈등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인/터/뷰

아르헨티나중앙교회 이훈우 목사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 공유하길”

아르헨티나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훈우 목사를 만나 교회 소식과 근황을 들어보았다. 벌써 아르헨티나중앙교회 사역 3년차를 기록하는 이훈우 목사의 모습에서 아르헨티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중앙교회로 가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네팔 선교사로 1기 선교를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르헨티나중앙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에 차이점이 있지만 모든 일이 영혼 구원의 일이라 생각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아르헨티나중앙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중앙교회가 문제가 있어 교단(KAPC) 차원에서도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교회 안에 문제와 분쟁, 그리고 다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많이 실족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현 시대를 볼 때 늘 마음 한 곳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소망인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늘 죄송함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다름이 있었지만 현실을 넘어 교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지역과 민족, 그리고 아르헨티나 땅과 다음시대를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교회의 분열로 성도들이 아픔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해 가셨는지?

교회의 분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처와 아픔은 극복됩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과거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성도들과 연합하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철학과 아르헨티나중앙교회 비전을 소개해주시시오.

아르헨티나중앙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소원이 "영혼구원과 제자훈련과 세계선교"입니다. 민족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또한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위해 사도행전적 교회로써 비정하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떤다"(행 2:26) 것 같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소모임을 통해 주님의 임재

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준비되어 허락한 사역과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힘써 수고할 것입니다.

■ 사명(Our Mission)

교회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혼구원(전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자양육(훈련):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제자로 훈련하여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사60:22)"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성자 기자)

선교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 낙심하지 말지니 차브(Chavs)~

"나는 열네살 때 살인미수로 감방에 갔습니다." 그때 십년 형을 받았고, 그 후 두 차례 더 감옥에 가서 합 17년을 살았습니다. 출옥한 지 6개월이 된 라찌(Laci, 41살)는 담담하게 말했고, 우리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치료하던 의사를 찔렀는데 얼마 후 죽고, 그 부모도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거리의 교회"로 급식하는 월요일 장소인 '허타르 역' 다리 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내게 19살 된 아들이 현재 감옥에 있는데, 2월 중순에 나와요. 엄마가 다른 9살 된 딸도 있고..." 두주 짜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그에게 딸린 가족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테러로 인한 불안감이 아닐까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건강, 학업, 진로, 결혼, 직장, 가족 등의 문제나 관심사가 있겠지만...

'차브(Chavs)'란, '어린이'를 의미하는 집시 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반사회적이고, 10대 때부터 여러 상대를 통해 혈액이 다른 자녀들을 낳고, 폭력, 마약, 알콜 등... 저희가 부다페스트의 슬럼가, 감옥, 역 후 추미진 곳, 다리 밑, 길바닥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곳 집시 슬럼가인 '회쉬 거리'에서 사역을 하게 된 초창기 때 일입니다. 여러 방해물 막기 위해, 흥부선교사는 벽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남편 곁에 지키고 있었지요. 선물을 받

기 위해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밀치며 다가왔는데, 그중 한 열네살 웃으며 제게 다가와 제 가슴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또래들은 키들대고...

어느덧 5년째 '회쉬 거리'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저희 밴으로 데리러 가자, 열 살 안팎의 남자애들이 흠과 돌을 넣은 눈송이를 맞은편에서 던지네요. 차에서 내려 사랑을 준 뒤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데 저의 등에 사정없이 또 눈을 던집니다.

"의지"와 '유연성'이야말로, 테러리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 동시에, 너무도 많은 것을 잃은 난민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불

세상에서 예의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새해 첫 토요일은 야노슈 산을 등정하면서, 지난 토요일에는 달란트 시장을 열면서, 그동안 출석, 태도, 성적 등으로 받은 포인트를 과자나 학용품, 장난감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30년, 100년, 130년 후 이들의 자손이 한국인 선교사를 기억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의료, 교육, 복음으로 구원시키고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처럼... 저도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자랐고, 이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수 있는 가치이다." 유명한 가수 미카(Mika)! 난민의 자녀로 자랐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본 그가 한 말입니다. "엄청난 위기에 대처하는 '의지'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유연함'..." 합하면, '의연함'이네요.

요즘 저희 사역의 가장 큰 기쁨은, "토요학교" 어린이들이입니다.

그들도 소위 '차브(집시 어린이)'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비록 가난한 공영주택자인 '살라쉬 거리'에 살지만 임대료를 정부에 책임감 있게 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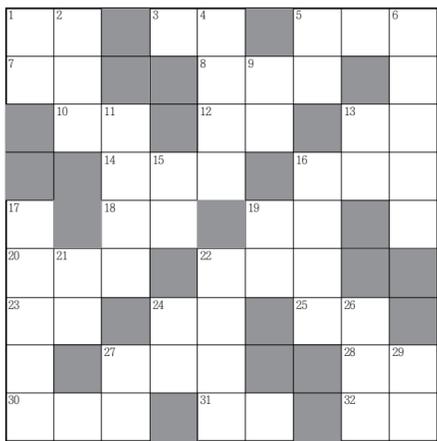
섬기는 선교사이듯!

요즘 추워서, '살라쉬 아이들'을 교회 데려오면 먼저 저희 사택에 데려와 핫초코를 줍니다. 애들은 흥부선교사 부부의 조그만 안방에 들어와 포근한 침대에 누워도 보고, 가족사진과 책들을 보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와! 코레아(Korea)~"

그게 여전히 어떤 '차브'를 대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예! 선교! 낙심하지 말지니, 차브(Chavs)~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114)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나라나 집안이 잘 다스려져서 조용하여 무사하고 평안함(사3:11).
3. 우레 소리(계4:5).
5. 터베인이나 바울을 따라 아시아까지 간 사람(행20:4).
7. 매우 평안함(스 5:7).
8. 하는 수 없이, 불가불(고전9:16).
10.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꾀함(잠14:22).
12. 거룩한 제사장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의복(출29:29).
13. 남에게 좌석이나 길이나 물건 따위를 사양함(국어 상식).
14. 세력으로 누르고 구박하는 사람(시119:121).
16. 솔로몬이...은 이스라엘의 000과...(대하1:2).
18.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왕하23:22).
19. 꿈계 생긴 아이(신23:17).
20.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000을 권하고...(골1:28).
22. 제야의 종소리와 관계있음. 서울 종로에 있는 보물2호(상식).
23. 아직 남은 희망(행27:20).
24. 많지 않음(요16:16).
25.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함(삼하19:27).
27.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삼33:23).
28. 신주 또는 화상을 받들어 모신(대상28:2).
30. 이르시되 000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눅10:2).
31.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딤후4:21).
32. 왕의 자리(눅19:12).

<세로 푸는 열쇠>

1. 게으르고 느림(렘48:10).
2. 북한 서북에 있는 도. 평양, 신의주가 있는 도(한국 지리).
4.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
5. 아셀지파의 변경에 있는 성읍(수19:27).
6. 의견상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은 같다는 말이다. 그게 그거(교사성어).
9. 뜻을 이룸(잠28:12).
11. "또 모음을 치매 000이 다향의 종..."(대상18:2).
13. 이쪽과 저쪽(신19:17).
15. 영어로 닥터(닥2:1).
16. 고을마다 모든 곳(눅10:1).
17. 몸시 기다려지거나 지루함을 나타내는 말(교사성어).
19. 마음이 무엇에 끌리어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종교적 신앙처럼 맹신하는 일(상식).
21. 사람의 죽음(고전15:55).
22. 포근하고 아늑한 집(행27:8).
24. 아침과 저녁(욥4:20).
26. 봉건시대에 천자가 땅을 나누어 준 지역에서 다스리던 왕(행13:1).
27. 아픔을 00 사슬이 없고...(민23:23).
29.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서 조용히 위로함(롬1:12).

십자말 정답

하	매	요	근	평		루	
하	오	주			하	로	연
평	원	만	주	평	하		
	조	하	주	복		하	
만	조	미	하	조	오	하	오
하		근	미	로	하		
	조	근	애	근	평	하	
오	매	평		만	오		오
조	로		하	조	하	매	하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그들은 교회가 성도들을 위하여 신조를 제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조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유일한 권위인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그 진리를 바르게 제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신조'(Credo, Creed)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다. 신조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이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분열의 위기 앞에 처한 교회를 '교백적인 교회'로 남아있게 하였다.

참고로, 니케야 신조가 즉각적인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향후 50년간 교회 내의 신학논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니케야 회의에서 결정된 신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전능자이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또한 우리는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본질 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는

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든지,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가변적"이라든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교회가 저주하노라."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16:13-17; 빌립보서 2:6-11; 히브리서 4:14-1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약한 권세로 잡혀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가 이루신 구원의 방법,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바로 그가 보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귀와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도 그의 정체성을 오해한 자들이 허다하였다. 하물며 그가 승천하시어 이 땅에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 이 시대에야 오죽하랴. 성령께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시기에,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니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력의 판단의 결과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향해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가 행하신 일을 바로 믿으려면, 먼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성경의 압축과일 풀기

(7면에서 계속)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도구로 말하면 돌보다는 칼이 훨씬 낫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다루지 않았다. 그 대신 돌 던지는 실력은 누구 못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칼을 내려놓고 돌매로 승부를 걸었다. 그리고 그 승부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는가?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는가?"라고 묻지 말고 "다윗과 같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우리는 왜 골리앗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일까? 왜 낙담하는 것일까? 다윗처럼 믿음이 없어서? 믿음 좋은 사람들도 골리앗과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것은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에게는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진 것이 물맷돌밖에 없는가? 내가 갖고 있는 물맷돌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 칼이 없고 돌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jinhlee1004@yahoo.com

세계한인 기독교 언론협회 독후감 장려상

이승순 사모 (그린빌한인교회, TX)



“하나님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 데이빗 플랫의 ‘래디컬 투게더’를 읽고-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에서 주최하는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 부족하지만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래디컬 투게더’의 저자 데이빗 플랫 목사는 자신이 섬기는 브룩헤일교회 성도들의 다양하고 급진적인 전도방법을 그의 책에서 날카롭게 밝혔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말해주었다. 교회나 개인의 예산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쓸 것을 권하며 교회가 원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브룩헤일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인근에 사는 중산층 직장인들을 겨냥한 전도를 생각했다. 그런 전도대상자들을 데이빗 플랫은 통상 ‘밥’이라고 부른다. 이들을 전도한다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더욱 풍부해져서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들보다, 주님을 모르고 지구 곳곳의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바루티’에게 복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바루티’란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종족들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브룩헤일교회는 사역의 최대목표인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제자를 삼는 일에 집중하여 교인들이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도록 이끌고 있다.

‘래디컬 투게더’를 읽으며 잠깐 혼란에 빠졌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인 나는 이미 데이빗 플랫 목사가 강조하는 모든 사역의 지침서와 방향들을 알고 있었다.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보고 배우기도 했다. 그런데 책의 말미에서 그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충철살인의 말은 햇빛 쨍쨍한 하늘에서 낮달같이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주님의 자녀라고 자부해왔던 나의 정체성에 아픔과 충격을 주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문화에 익숙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의 안전지대로 여기며, 스스로 돌리진 울타리를 벗어날 생각을 못했다. 아마 구원의 열정이 부족했는지 주님을 단지 나만의 구주로 여겼던 탓이리라.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교회 일에 열심히던 남편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 그 무렵,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것들을 내려놓기로 했다. 안전장치를 풀고 본격적으로 신학공부를 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기로 작정했다. 목회자가 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결심을 하고 나니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게 다가왔다. 주님께 말했다.

그리고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에 머물러 있던 삶을 떠나 남편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를 결심했을 때,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을 나누게 되었다.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는 우리 부부의 앞길에 쌓아둘 이유가 없었다. 욕심 많은 시절에 구했던 새 집, 그 집을 꾸미고자 장만했던 가구와 장식품, 아름다운 액자, 사랑했던 화초들까지 남김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미국에서의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가난과 다시 친해지기로 했다.

예배로 새로운 것을 탐내며 살았던 내가 이렇게라도 바뀐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가장 난 야날로그 TV, 베터덕 거리는 식탁과 서로 다른 모양의 의자들, 뚜껑 없는 냄비들, 유학을 때 유일하게 가져 온 28년 된 피아노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 해 온 소중한 역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거실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액자 속에서 가족들이 웃고 사람들이 웃고 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일을 하여 수입이 생기면 전도하는 일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에 대부분 써버렸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로 제한시켰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

남편은 신학공부를 마치고 역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한인들과 한인교회가 없던 시골 한 구석에 교회를 개척했다. 남편을 따라서, 드문드문 흩어져 사는 동족들, 서로 관계를 끊고 교회도 멀리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교민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었다. 늘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다. 늦게 시작한 목회다보니 사실 체력이 많이 딸려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달리 마음을 쏟을 여유도 없었다.

목회자라는 직분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영혼구원과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다. 이 책임감 때문이라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지 않게 지나온 날들이었다. 우여곡절 속에서 견뎌온 힘은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으리라. 모든 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독특한 교회 환경이다 보니 분의 아니게 데이빗 목사가 제시하고 지향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왔다. 마이크 한 개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소화해야 했고, 어려운 교회 형편 속에서도 예산의 대부분을 선교비로 지출했다. 어찌하다 못해 새 가족을 위해서는 따뜻한 환영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뿐이었다.

데이빗 플랫 목사는 글을 통해, 현대는 성경말씀보다 기독교 서적에 넘쳐나는 대중 심리학 서적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려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다양한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이려는 욕심이 될 틈 없이 생각하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교회지도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은 성경 안에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담아 인류에게 선사하셨다”고 하며 이어서 “말씀을 기록해서 넘겨주신 목적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행상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교회부흥의 필수요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좋은 예배환경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데이빗 플랫은 교회에서 하는 갖가지 ‘좋은 일’들에 대한 우려를 책의 곳곳에서 지적하면서 교회의 ‘좋은 일’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나를 향했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일지도 모른다.

‘래디컬 투게더’를 읽으며 우리 부부가 이민목회현장에서 찾고 만난 ‘밥’들과 함께 지었던 이 울타리마저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삼상19:6-12)

삼상 19장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 그의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하든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누명을 풀어주어 다시 왕궁에 들어왔다가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맺어진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진실하고 더욱 아낌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사울왕의 딸 미갈을 통하여 다윗이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갈은 인간적인 사람으로 도움을 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움을 줄 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화 내가 그를 죽이리라(삼상19:12-17)

미갈이 다윗을 빼돌려 살려주는 것은 좋았는데 미갈은 사울이 보낸 사람들과 사울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갈이 요나단과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사울왕에게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가?”(4:5절)하며 막았어야 하는데 미갈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보내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좀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걸립니다. 성도

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해도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결국에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에루살렘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 미갈이 다윗을 조롱함으로써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미갈은 여전히 “사울의 딸”이라고 불립니다.

수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삼상19:18)

다윗이 급히 도피하여 달려간 곳이 라마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즉시 달려가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사울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 즉시 주님께로 달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때에 따라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에게 기도제목을 내놓고 신앙상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행복한 성도입니다. 다윗은 즉시 사무엘에게 기를 부음을 받은 후부터는 자주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가 즉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당한 상황을 모두 다 말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목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삼상19:19-23)

다윗이 라마나웃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함께 거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기도함으로써 많은 위로를 받았습다. 그러나 정답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세 번이나 사자들을 보냈지만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에 사울이 라마나웃으로 왔는데 사울 역시 라마나웃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추어 온종일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됐습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충만한 모임에 오면 성령충만한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성령충만한 예배드리고 있으니가 다윗을 잡으로 온 사람들이 사무엘이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다가 성령충만을 받았습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 사울도 선지자 후에 어느나 하니라(삼상19:24)

본문 상황은 사무엘이 인도하고 선지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세 번씩 오고 사울도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라마나웃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나베”란 말

의 뜻은 계시 받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가 되어 인도하는 이 예배에 성령이 충만한 이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충만하고 내가 먼저 말씀 듣고 기도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결음뿐이니라(삼상20:1-3)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 다윗이 조금 더 빨리 모든 위험에서 벗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라마나웃에서 도망을 나왔습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여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답답해서 믿음의 친구 요나단에게 가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를

떠났습다. 그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고비 때에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될 준비가 덜 됐습다. 이제 다윗은 더욱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international churches with columns for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Kumran, Dandenong, Roman Catholic, etc.

인/터/뷰 남가주 순회공연 갖는 '노아'(노래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공유하길”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이 세운 이곳 미국 땅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투어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연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순회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단계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노래하는 아이들) 대표 정래욱 씨는 노아의 첫 번째 미주투어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창단된 노아는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곡 제작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정래욱



노아(노래하는 아이들) 멤버들

생기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어진 학업에 충실해야 하겠지만요.”

정 대표는 노아의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사역에 대해 기도로 준비할 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문화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저 또한 문화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감사한 것은 노아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보면 표정이 밝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삶이 경쟁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매일 매일의 삶이 치열해야

‘너는 축복의 씨앗’, ‘나는 특별해요’ 등 자작곡 공연
2000년 창단...어린이 청소년 찬양문화 보급 목적

대표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른들이 부르는 것과 같은 곡을 부르는걸 보게 돼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는 곡은 한정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대는 성인들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찬양보급사역을 시작한 정 대표는 노아의 두 번째 앨범부터 댄스가 접목된 곡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단원모집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노아는 16기까지 결성돼 있다. 노아는 미주지역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스이미지와 시즈오브워십(Seeds of Worship)의 사역과 공통점이 있다.

두 단체는 이미 발표된 곡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반면 노아는 거의 모든 곡들을 작사 작곡한 자작곡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너는 축복의 씨앗’, ‘나는 특별해요’ 등이 있다.

“현재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노아에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허버드대학교에 유학을 떠나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현재 노아는 7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과 군산, 대전 지역과 말레이시아와 치앙마이까지 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찬양문화를 보급하기위한 것으로 또 다른 한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청에서 열린 유니세프가 주최한 국제에니메이션 행사에 한국대표로 참가한바 있다.

노아의 활동에 대해 노아의 8기이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정지는 자매는 노아의 활동이 신앙인으로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정 자매는 “청소년들이 노아로 인해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어릴수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 역시 노아로 인해 주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쁜 것들에 대해 접하기도 하는데 감사한 것은 노아로 인해 세상 것들에 대해 자제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으며 뮤지션의 길을 꿈꾸고 있는 백승호 형제는 이번 투어에 참여하는 것에 부모님의 반대가 없었냐는 질문에 특별히 그러신 적은 없으셨다고 웃으며 말했다.

“저는 노아를 하면서 고3 생활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했던 거 같아요. 그것은 제가 공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고3이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학력위주의 사회라던가 함께 학교에서 지내는 친구들일지라도 결국 경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 같습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삶의 우선권을 놓치게 되기에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눈앞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양 끌려가기에 진정한 축복을 놓치고 살게 되니까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는 노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사랑과 삶의 우선권을 알게 되길 바라며, 아이들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아의 미주투어 일정은 지난 1월 24일 나성성결교회를 시작으로 29일(금) 갈보리믿음교회와 샘물교회, 30일(토) 테메큘라장로교회, 그리고 31일(주) LA워십교회에서 예배 특별찬양 및 공연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박한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새해가 되면 서로를 격려하며 성공하기를 바라며 축복을 기원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은 운명적으로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 성공을 수동적으로 고대해서는 안 된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두 발로 뛰어나며 성공의 노후를 찾아 적극적으로 성공의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마크 빅터 헨센의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영혼의 닭고기 수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시리즈로 유명해진 자기계발 카운슬러이다. 그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 몇 가지가 있다.

탁월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기고 실천을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좋은 멘토(mentor)에게서 배우라는 것이다. 그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44명의 멘토에게서 영향력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했다. 셋째, 긍정적인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특히 올바른 사고체계를 위해 미래를 위한 계획서를 쓰라고 조언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미래 계획에 대한 일기를 쓰세요. 제 경우엔 6천여 개의 개인적인 미래 목표를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정해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고를 요하는 성공지침서이다.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 올 한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생활화하자. 영원한 멘토인 예수님께 순종하자. 분명한 비전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성공은 누구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당신도 수직상승하며 성공할 수 있다.

bible66@gmail.com

(15면에서 계속)

주님과 함께 1세기의 제자들이 온 천하를 소란스럽게 했던 사역 덕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도 다른 민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랑하셨던 별 볼일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분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예수님의 구원커리큘럼에는 교회건물, 교회의 미래를 위한 재정, 복음전도에 혁신적인 프로그램, 고정신자를 위한 다양한 예배형태가 없었다. 물론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커리큘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한 줌도 안 되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쏟아 붓는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었다면 데이빗 플랫폼 목사의 ‘래디컬 투게더’란 책도 그다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내 삶과 충돌되었던 적이 있었기에 이 책을 읽고 내 삶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생각하며 새삼스레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지 ‘순종’은 나의 몫일뿐이다. 주님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어리석고 비천했던 나를 주님의 일에 끌어들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동참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데이빗 플랫폼의 말이 정답이다.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은 ‘래디컬 투게더’라는 책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나의 한계를 뛰어 넘게 하신 것이다.

가물었던 달라스에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렸다. 도로주변이 빗길고 온 들꽃들의 천지가 되었다. 내 남은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린다면, 널리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며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씨앗이 누군가의 삶 속에 내려앉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까?

히브리어·헬라이어

원문 번역 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구약 출간예정

신약 신간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규(월간목회) 기획 2,106면
이형규(금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